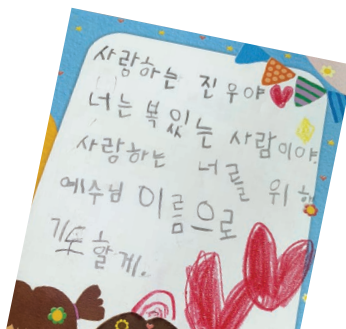


함글함글

가족이 신앙교사입니다 신 6:5~7, 엡 6:4, 삿 2:10
2021년 주님의교회 표어



441
2021.9.26

오늘의 말씀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 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마태복음 13:44

오늘의 주요기사

2 신년 특집
3 교회 소식
4~7 유아숲 여름성경학교

8~11 유소년숲 여름성경학교
12~15 청소년숲 온라인 여름 수련회
16~18 청년숲 온라인 여름 수련회

20 광야의교회 소식
21~22 교우 원고
23 목회칼럼



가을

뜨거웠던 여름이 지나고 선선한 바람이 불어옵니다. 짙은 먹구름이 사라진 높고 파란 하늘이 감동을 줍니다. 하늘을 보게 되는 날이 부쩍 많아진 요즘. 점심 먹고 산책 중 무심코 올려다 본 하늘에는 십자가가 높이 솟아 있었습니다. 뜨거웠던 자리, 짙은 먹구름이 드리웠던 내 삶의 공간에도 높고 파란 하늘에 높이 솟은 십자가 하나 품을 수 있는 가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는 이름

신년특집으로 현직 아빠이며 자녀의 신앙교육에 관심이 많은 함글함글 기자가 쓴 '가족을 통해 배우는 신앙 이야기'와 신앙교육에 대한 좋은 책에서 명문장을 뽑아 소개하는 '책속의 명문장'을 연재합니다.

함글함글

가족을 통해 배우는 신앙 이야기

아이에게 배우는
집사 아빠

이름처럼 살아가는 삶

첫째 아이의 영어 이름은 'Isaac(아이작)'이다. 성경에 나오는 인물인 '이삭'이다. 아기 때부터 웃음이 많은 아이라서 영어이름을 'Isaac'이라고 지어주었다. 둘째 아이의 영어 이름은 'Daniel(다니엘)'이다. 전형적인 규범형으로 TV CF에서 많이 들어봤던 '지킬 것은 지킨다'는 말을 몸으로 실천하고 있는 아이이다.

지어준 영어 이름처럼 첫째 아이는 웃음이 정말 많다. 혼나거나 다쳐서 울 때도 그 울음이 오래가지 않는다. 속상한 일을 오래 품지 않는다. 탐구형이다보니 궁금한 것이 있으면 하지 말아야 할 행동이라는 생각보다 해보고 싶다는 생각이 더 크게 작용해서 무작정 해보는 일도 많다. 은근히 장난기가 많아서 동생에게 장난도 잘 친다. 해야 할 것은 궁시령거리면서도 다 하고 하지 말아야 할 것은 아무리 좋은 말로 꼬셔도 하지 않는 둘째는 그런 형의 무모한 실험과 장난을 보면 형을 혼낸다. 엄마아빠가 하지 말라고 했는데 도대체 왜 그런 행동을 하는거냐며 형을 이해할 수 없다고 한다. 아이의 성격에 맞게 영어 이름을 참 잘 지은 거 같다.

기질과 성격마다 장단점이 분명히 있다. 좋은 기질, 나쁜 기질이 정해져 있지 않다. 이런 아이들의 기질과 성격을 잘 이해하고 맞춰주면 양육이나 교육이 한결 편한 거 같다. 특히, 이름이나 애칭을 이렇게 기질과 성격에 맞게 지어서 부르면 항상 그것을 기억하게 된다. 첫째는 '웃음이 많은 아이인데 요즘 왜 이렇게 힘이 없어보이지?' '둘째는 내가 시킨 일 이 하기 힘든데도 불구하고 해야만 한다는 강박 때문에 억지로 하고 있는 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게 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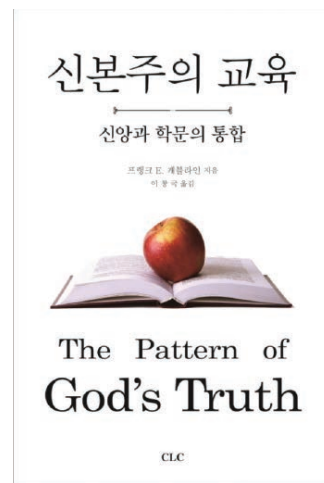
이름에는 참 특별한 힘이 있는 거 같다. 이름뿐 아니라 어떤 호칭으로 불리는지에 따라 전혀 다른 생각을 하게 된다. 나의 경우에도, 아빠라고 불릴 때는 아이들과 자녀양육에 대해 생각하고, 남편이라고 불릴 때는 아내와 가정을 생각한다. 집사라고 불릴 때는 신앙과 사역에 대해 생각하고, 선생님이라고 불릴 때는 교육에 대해 생각한다. 선임이라고 불릴 때는 해야 할 일들이 생각나고 학우라고 불릴 때는 들어야 할 수업과 내야 할 과제에 대해 생각한다.

이름을 부를 때도 어떻게 부르는지에 따라 분위기가 많이 달라진다. 아이들을 부를 때 이름만 부를 때도 있고 성과 이름을 함께 부를 때도 있다. 보통 무거운 분위기에서 성과 이름을 함께 부르기 때문에 아이들은 성과 이름을 붙여서 부르는 것을 좋아하지 않는다.

하나님은 나를 뭐라고 부르실까 생각해본다. 또 어떻게 부르실까도 생각해본다. 부르시는 호칭을 잘 듣고 그에 맞는 행동을 하고 그에 맞는 삶을 살고 있을까? 아이들의 이름을 부르며 나를 부르시는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여 부르시는 대로 살아가는 집사아빠가 되어야겠다고 다짐해본다.

책 속의 명문장

신본주의 교육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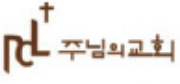


프랭크 E. 개블라인 지음, 이창국 옮김.
CLC, 2020

-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이 세상의 모든 일과 모든 영역에 있어서도 주인이시기 때문입니다. 교회 바깥의 일들이라고 해서, 그리고 비기독교인들과 관련된 일들이라고 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전제로 하지 않고 성립된 이 세상의 학문이 가르치는 대로 생각하고 판단하고 행동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 우리가 이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서의 역할을 올바르게 감당하기 위해서는, 이 세상의 모든 일들을 하나님의 방식대로 보고 판단하고 행하는 방법들을 배우고 익혀야만 합니다.
- 우리는 공교육을 기독교적으로 변화시키려는 일보다, 우리 자신이 기독교적 모범을 보이는 일에 더욱 더 몰두하고 전념해야 합니다. 기독교 교육이 이 세상에 모범으로서 존재해야 된다는 말은, 이 세상의 일들을 보고 판단하고 행하는 방법들을 공교육을 통해서가 아니라 우리가 직접 연구하고 가르쳐야 한다는 것을 뜻합니다.
- 기독교 교육의 참된 목적은 기독교인들이 이 세상의 모든 일들을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고 온전한 방법으로 보고 판단하고 행할 수 있도록 단련시킨다는 데 있는 것입니다.
- 그리스도와 성경이 통합의 구심점이라는 말은 '하나님의 진리'가 곧 모든 기독교 교육의 토대라는 말입니다. 이 말은, 기독교 교육에 종사하는 우리들이 '하나님의 진리'에 관하여 좀더 철저하고 깊게 생각해야 한다는 점을 일깨워 줍니다.
- 문자화된 하나님의 말씀 뿐만이 아니라, 창조세계라는 하나님의 계시도 기독교 교육을 하기 위한 합당한 토대임을 인정해야 합니다.
- 우리가 하는 일이 얼마나 기독교적인가 하는 문제는, 단순히 우리가 하는 일이 어떠한 일인가에 의해서만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 일을 어떤 방식으로 하는가라는 점에 의해서도 좌우된다.
- 훈육의 책임을 맡아 행하는 사람은 반드시 그리스도의 사랑을 체득하고 있어야만 합니다.
- 우리에게 진리를 가르쳐야 할 책임이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진리를 널리 알려야 할 책임도 있는 것입니다.
- 국어나 수학을 배우고 익히는 일에 최선을 다하는 학생이 있다면 그 학생은 물리학이나 심지어는 성경까지도 배우고 익힐 시간이 없을 정도로 기독교 활동에 전념하고 있는 학생과 꼭 마찬가지로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 것입니다.
- 기독교 교육의 참된 의미는 기독교인들의 문화적 학문적 지도 및 선도의 능력을 함양시키고 신장시킴으로써 기독교인들이 이 세상의 모든 문화와 학문의 영역들을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고 온전한 모습으로 변화시키고 성장시킬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교회 소식 | 당회

교회 규정 개정과 제정



처음오셨어요? [예배와 설교](#) [다음세대](#) [양육과 훈련](#)

주님의교회 규정 제·개정 알림

홈페이지관리자

2021년 9월 12일 9월 정기당회에서 의결된 규정 제·개정 사항을 알려 드립니다.

사역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제정된 규정 : 1. 직원 통상근무 및 당직근무에 관한 규칙

2. 홈페이지 운영규정

3. 홈페이지 운영세칙

4. 역사자료관리규정

5. 역사자료관리세칙

○ 일부개정 규정 : 주님의교회 사무국운영규정

* 홈페이지 규정집 경로 : 홈페이지 상단 한눈에 보기 > 소통과 기록 > 규정집

주님의교회 사무국

지난 9월 12일 정기 당회에서 ‘주님의교회 규정 일부개정안’ 1건과 ‘주님의교회 규정 제정안’ 5건이 의결되었다. 일부개정안에서는 <사무국 운영규정>의 근무시간과 유급휴가에 관한 규정이 개정되었고, 규정 제정안에서는 <직원 통상근무 및 당직근무에 관한 규칙>, <주님의교회 홈페이지 운영규정>, <홈페이지 운영세칙>, <주님의교회 역사자료 관리규정>, <역사자료 관리세칙> 등의 제정안이 의결되었다.

이에 따라 코로나19 이후 사용량이 증가한 홈페이지에 대한 구체적인 운영규정이 제정되었고, 개인정보보호 등과 관련된 규정이 강화되었다. 또한 주님의교회의 역사 자료를 관리하는 역사자료관리부의 규정이 제정됨에 따라 앞으로 효율적이며 체계적으로 역사자료를 취합하고 정리, 보관할 수 있게 되었다. 자세한 내용은 주님의교회 홈페이지 게시판에서 ‘주님의교회 규정 제·개정 알림’을 통하여 확인할 수 있다.

함줄함울

교회 소식

문희삼 목사, 서문교회 담임목사 부임

주님의교회에 2014년 부임하여 2019년까지 부목사로 재임했던 문희삼 목사가 음암동 서문교회 담임목사로 청빙되었다. 서문교회는 대한예수교장로회 평양노회 소속으로, 1976년 창립되어 45년의 역사를 가진 교회이다. 문희삼 목사는 대치동 서울교회로 옮긴 전임 손달익 목사에 이어 추석 명절 이후 서문교회의 제4대 담임목사로 부임하게 된다. 문희삼 목사는 2021년 8월 30일 서문교회 청빙위원회에서 최종 담임목사 후보로



결정되었고, 9월 5일의 당회와 9월 12일의 제직회 의결을 거쳐 청빙이 확정되었다.

함줄함울

교단 소식 | 제106회 총회

생략·단축·철저한 방역, 효율적인 총회로

오는 9월 28일 제106회 총회가 '복음으로, 교회를 새롭게 세상을 이롭게'를 주제로 오전 10시부터 오후 10시까지 한소망교회(류영모 목사 시무)에서 개최된다. 이번 총회는 하루만에 진행되는 총회이다 보니 시간 단축을 위해 필수적인 것을 빼 나머지는 거의 생략하거나 단축 진행하는 것이 특징이다. 이번 총회에서 다루어질 주요 이슈를 포함, <한국기독교공보>의 관련 기사를 발췌 요약한다.

총회 총대 비례대표제

총회 총대 비례대표제는 젊은 층의 목소리를 총회 정책에 반영하겠다는 취지에서 제안된 것으로, 서울서남노회장과 인천동노회장, 전남노회장 등 4개 노회장이 지난 제104회 총회에 총회 총대 비례대표제를 현의안으로 상정한 바 있다. 총회 총대의 평균 연령이 65세에 이르는 현실을 감안할 때, 이러한 구조를 개선하기 위한 대안으로 부각된 것이 총회 총대 비례대표제였다. 총회가 청년과 부목사, 선교사, 30~40대 목사·장로 등을 비례대표로 세워 다양한 목소리를 듣고 총회 정책에 반영하겠다는 취지로, 이번 총회에서 타당성 여부를 논의하게 된다.

예배처소 공유제

예배처소 공유제도는 물리적 공간을 여러 교회가 공유하는 것을 말하며, 건물 중심이 아닌 '성도 중심'의 교회로 전환하는 새로운 목회패러다임의 사례로 제시되었다. 이를 통해 교회와 목회자는 목회 본질에 집중할 수 있고, 개교회주의를 탈피한 협력과 상생을 가능하게 하는 것을 목적으로, 제106회 총회에서 예배처소 공유제 도입에 명확한 결론을 도출할 수는 없을 것으로 보이지만 김포명성교회와 수서교회, 서울관악노회 등이 예배처소 공유제를 건강히 시행하고 있어 시범교회와 노회들의 추이가 총회 정책의 방향과 단계적 도입을 위한 잣대가 될 것으로 보인다.

자비량 목회(이중직)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 국내선교부에서 상정한 자비량목회는 급변하는 목회 현장의 대안으로 제시되고 있다. 이전에는 이중직 목회라고 불리던 자비량 목회에 대해서, 관련 위원회가 종교개혁신학, 선교적 교회론에 부합하며, 공공신학적 관점에서 사회의 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필요한 목회유형의 다양화의 필요성에 부합하다는 결론을 내림으로써, 자비량 목회가 새로운 목회 유형의 하나로 제안됨에 따라 심도 깊은 논의가 이루어질 전망이다.

NCCK·WCC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NCCK), 세계교회협의회(WCC)에 대한 관심을 회복하고 적극적인 참여를 하는 방향으로 논의가 진행될 예정이다. NCCK는 1924년 한국교회의 일치와 에큐메니칼 운동을 위해 장로교와 감리교의 선교 협의체인 조선예수교장감연합공의회로 출발했다. NCCK는 예정 총회가 한국의 그리스도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이 일치 협력해 하나님의 영광을 드높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널리 전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뒤를 따라 하나님의 생명, 정의, 평화를 이루기 위해 모이고 힘쓰는 하나님의 선교를 목적으로 설립한 기관이었다. WCC는 예정 통합과 합동이 분열될 당시에 총회가 WCC를 선택할 정도로 의미가 있는 단체인만큼 총회와 긴밀한 관계에 있다. NCCK와 WCC가 회원 교단의 협의체인 만큼, 교단과 협의체 모두 소통을 강화할 필요가 대두되었다.

한국기독교공보

“와! 하나님이다”

어느 해보다도 뜨거웠던 여름, 유아숲의 가족들은 희망과 용기를 주시는 하나님을 만남으로써 뜨거운 7월을 보냈습니다. 코로나로 인해 비대면 예배로 전환된 지도 어느덧 1년 6개월, 작년에 이어 두 번째 온라인 여름성경학교를 맞이한 2021년 유아숲 여름성경학교는 더욱 알차고 풍성한 시간들로 채워졌습니다. 유아숲 여름성경학교는 “와! 하나님이다(겔 37:5)”라는 주제로 6월 13일(주일) 온라인 새친구 초청잔치인 “예수님을 내 친구에게 소개합니다(예친.소)”를 시작으로 7월 25일(주일)까지 진행되었습니다.

“예친소”는 여름성경학교의 시작을 알리는 7월 10일(토) 여름성경학교 오프닝파티에 전도한 새 친구를 초대하는 전도 프로그램입니다. 여름성경학교를 한 달 앞둔 6월, 유아숲의 친구들은 전도할 친구를 작성하고, 그 친구에게 매주 주어지는 미션(전도할 친구 정하기, 사랑의 편지 전달하기, 여름성경학교 초대장 전달하기)을 실천함으로써 전도의 중요성과 방법을 몸소 배울 수 있었습니다.

여름성경학교의 시작을 알리는 7월 10일(토, 11:00~13:00)에는 사전 신청자에 한해 사회적 거리두기에 따른 정부 방역지침을 준수하며 “만나데이”로 교역자와 교사, 유아숲 가족들이 교회 현장에서 잠시 만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유아숲의 가족들은 “만나데이”를 통해 반가운 얼굴들을 만남과 동시에 가정교회에서 온라인으로 진행되는 이번 여름성경학교 때 필요한 여름성경학교 키트와 단체복, 간식이 담긴 키즈박스를 직접 받아갈 수 있었습니다. 아쉽게도 “만나데이”에 참석하지 못한 친구들은 가정에서 택배를 통해 키즈박스를 받았습니다. 오후 3시, 온라인 유튜브 유아숲 채널을 통해 신나는 찬양파티와 뮤지컬 “너는 최고의 작품이란다.”가 담긴 여름성경학교 오프닝 영상이 오픈됨으로써 본격적인 여름성경학교의 서막이 올랐습니다. 특별히 이번 여름성경학교는 코로나로 인해 모이기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시간과 마음과 열심을 내주신 유아숲 교사분들의 참여와 헌신으로 더욱 풍성해질 수 있었습니다. 교사들로 구성된 “너는 최고의 작품이란다”뮤지컬팀의 열연으로, 유아숲의 아이들은 우리 모두를 사랑하시고, 최고의 작품으로 만들어가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유아숲 친구들은 7월 10일(토) 오프닝을 시작으로 25일(주일)까지 총 세 번의 주일에는 여름성경학교 주제 말씀으로 드러지는 예배와 성서학습을 통해 에스겔을 통해 이스라엘에게 희망과 용기를 주신 희망의 하나님을 만날 수 있었습니다. 수요일과 금요일 오전에는 총 4가지의 특별학습활동(종이컵 놀이, 마른 뼈 인형 만들기, 코인 물티슈 놀이, 푸딩 만들기)영상을 통해 가정에서 재미난 하나님의 말씀을 만날 수 있었습니다. 놀랍게도 이번 여름성경학교에서는 코로나로 인해 직접 만날 수 없는 언택트 상황에도 불구하고 유아숲 친구들이 새친구 초청잔치인 “예친소”를 통해 22명의 새친구를 전도하였습니다. 절망 가운데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희망의 메시지를 선포했던 에스겔처럼, 지치고 답답한 현실 가운데서 유아숲의 모든 가족들은 “와! 하나님이다!”를 외치며 희망의 하나님을 뜨겁게 만나고, 다른 친구들에게 희망의 하나님을 전하는 뜨거운 여름을 보냈습니다.



교사 소감

아이들이 좋아한 늑돌이와 개미

2019년에는 늑돌이로, 올해는 개미 역할로 유아숲 뮤지컬에 참여하게 된 유치부 교사 안동섭입니다.

2019년과는 달리 올해는 코로나로 인해 아이들을 직접 만나진 못해서 너무 아쉬웠지만 이은미 전도사님을 비롯한 뮤지컬팀 선생님들과 함께 모두 한 마음으로 기뻐할 아이들의 모습을 상상하며 열심히 연습했고 그 결과 영상을 통해 아이들도 무척이나 좋아하는 모습을 보며 굉장히 뿌듯했어요

특별히, 아이들과 직접 만날 수 있었던 “유아숲 만나데이”때는 개미 의상을 입고 아이들과 사진을 같이 찍었었는데 의상이 두꺼워 굉장히 더웠음에도 불구하고 즐거워하는 아이들 모습에 더운 줄도 모르고 행복한 시간을 보냈답니다 ^^

안동섭 교사 / 교사뮤지컬팀 유아2부



교사 소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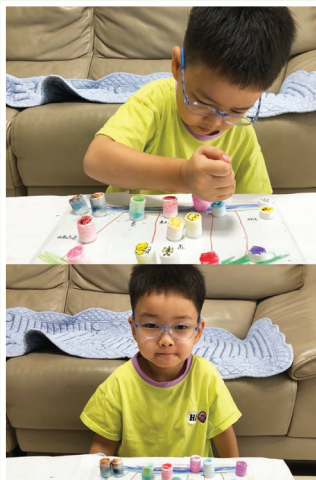
주님의 동행 체험한 행복한 경험

2년 전 싹트네 전도사님께서 아주 작은 까메오 역할을 해달라는 권면으로 부담감 전혀 없이 뮤지컬팀에 들어갔습니다. 가벼운 마음과 달리 남다른 스케일에 당황했지만 시간 날 때마다 모여 연습을 하고 집에서도 열심히 연습을 하면서 여름성경학교 공연을 무사히 잘 끝냈었습니다. 지금 생각하면 그때의 제 마음가짐은 아마 학예회 발표를 멋지게 하고 나서의 뿌듯함 정도였던 것 같습니다.

작년부터 이어지는 코로나19로 올해는 우리 반 친구들조차 단 한 번도 만나지 못하고 변함없는 영상예배로 조금은 지쳐있을 무렵 이은미 전도사님의 “뮤지컬팀 다시 결성”문자를 받았습니다. 머리로는 이번엔 안해야지 하면서도 눈으로는 대본을 읽고 어떤 역할을 할까 고민하는 저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이 날 쓰시려고 하는구나’라는 생각이 들며 순종하기로 했습니다. 줌으로 뮤지컬연습을 하면서 조금은 답답하고 불편한 감이 있었지만 유아숲 친구들에게 조금 더 쉽고 재미나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다고 생각하니 그 상황조차도 감사했습니다. 연습을 하면 할수록 크게 크게 하나님의 사랑이 저에게 채워지고 있음을 느꼈습니다.

뮤지컬 “너는 최고의 작품이란다”이번에도 멋진 공연을 유아숲 친구들에게 보여줄 수 있었습니다. 두 번의 뮤지컬팀 공연! 첫 번째랑은 전혀 다른 저였습니다. 매 순간 연습할 때마다 주님이 저에게 주신 사명에 순종했더니 큰 은혜와 늘 나와 동행하고 계신 주님을 만날 수 있었습니다. 유아숲 뮤지컬팀은 행복한 놀입니다. 다음 공연이 있음 또 순간 고민하겠지만 무대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뮤지컬로 전하는 저의 모습이 보입니다. 부족한 저에게 또 다른 사명을 주신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김경숙 교사 / 교사뮤지컬팀 유아2부



부모 소감

여름날의 좋은 추억

“와! 하나님이다!”라는 주제로 2021년 유아숲 여름성경학교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잘 마쳐졌습니다. 여름성경학교 오프닝파티부터 가족 뮤지컬, 성서학습과 특별학습 그리고 믿지 않는 친구를 위해 기도하는 행사까지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여름성경학교를 알차게 보낼 수 있었습니다. 작년과 같이 코로나로 인해 여름성경학교를 비대면으로 진행하게 되었지만 재미있는 온라인 예배와 다양한 활동, 선물이 들어있었던 키즈박스로 아이는 물론 엄마, 아빠, 온 가족이 여름날의 좋은 추억을 만들었습니다. 비대면 여름성경학교지만 좋았던 점은 키즈박스를 받기 위한 드라이브쓰루를 통해서 잠깐이지만 교제할 수 있어서 좋았고, 성서학습과 특별학습이 시간표가 있어서 정해진 시간에 맞춰 영상을 보고 규칙적으로 성경학교를 진행할 수 있어서 좋았습니다. 키즈박스 언박싱 영상을 보며 아이가 받은 선물과 활동에 대해서 이야기 나눌 수 있어서 좋았고, 집에서 보내는 시간이 많아진 요즘 같은 날 아이와 만들기 활동을 하며 흥미로운 시간을 보낼 수 있어서 좋았습니다. 또한 믿지 않는 친구를 위해 기도하는 행사는 아이뿐만 아니라 저희 부부에게도 전도의 의미를 다시 한번 생각할 수 있는 좋은 시간이었고, 앞으로도 우리 가정의 중요하게 기억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아이가 단체복을 입고, 주제가에 맞춰 율동하고 예배에 집중하는 모습에 흐뭇하면서도 마음 한편에 아쉬움이 남는 건 어쩔 수 없었습니다. 유아숲 아이들이 한창 모여서 다 함께 율동하며 교제해야 하는 시기인데 그렇게 하지 못함에 있어 이 부분은 작년부터 아쉬움으로 남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온라인 주일예배 후에 나오는 아이들의 사진을 보며 마음을 달래고 있는데, 저희 부부는 아이와 함께 친구들의 사진을 보며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면서 각자의 가정에서 비대면 교제를 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각 가정에서 신앙교사로 섬겨주시는 부모님들 그리고 항상 밝고 기쁘게 찬양드리는 우리 유아숲 친구들 모두에게 박수를 보냅니다. 내년 여름성경학교는 꼭! 다함께 만나서 더욱 기쁘게 예배드리기를 소망하며 소감문을 마칩니다.

김세희 집사 / 영아2부 전서후 엄마



부모 소감

기도의 마음 주심에 감사

코로나가 길어지면서 아이들과 교회에 못 가는 환경 가운데 2021년 여름성경학교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그 가운데 예친소도 함께 한다는 말씀을 듣고 교회에서 드리지 못하지만 가정에서 이웃과 함께하는 여름성경학교를 기대하며 서희 친구들을 떠올려 보았습니다. 어린이집 친구 몇명 중 저와 놀이터에서 인사를 주고받았던 서인이가 떠올라 용기 내어 서인이 어머님께 부탁을 드리니 서인이 어머님께서 ‘저희 집은 독실하진 않지만 부모님들이 불교를 믿으신다’하시면서 처음에는 어려워하시며, 거리를 두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부담 갖지 않도록 뮤지컬도 만들기도 아이들에게 유익하니 여름성경학교 키즈박스를 받으시면 좋을 것 같다고 권하고, 저희 교회가 정신여고 안에 있는 것과 학원사업에 힘쓰고 지역사회서 칭찬받고 있다는 점을 설명해드리며 참여를 권면해드렸습니다. 그리고 준비해주신 키즈박스와 예배 영상링크를 전달해드렸습니다. 처음에는 답이 없어서 ‘너무 강요했나?’ 이런 자책도 들었지만 복음의 씨앗을 뿌렸다 생각하고 자라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심을 기억하고, 기도하였습니다. 주님의 도우심을 바라며 기다리던 중 서인이와 오빠가 너무 재미있어하고 좋아한다는 카톡을 보내주셨습니다. 여름성경학교가 끝나고 저희 집에 초대하여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던 중, 회사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을 때 믿음이 좋은 절친한 회사 동료가 큰 힘이 되었는데, 서인이를 통해 좋은 믿음의 사람을 알게 되어 신기하다고 고백하셨습니다. 지금도 놀이터에서 가끔 보며 일상적인 대화들을 나누며 교제권을 넓혀가고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 적극적으로 예수님을 전하지 않고 교회 행사참여만 권면해 드린 것 같아 죄송하고 제가 더 기도하지 못한 게 주님 앞에 부끄럽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부족한 저의 용기를 받아주셔서 조금이나마 사용하심이 감사하고 또한 기도의 마음을 주신 것에 감사드립니다. 다음에는 서인이 가족에게 제가 만난 예수님을 꼭 전하는 기회를 갖기를 소망합니다.

오영재 집사 / 영아2부 현서희 엄마



부모 소감

고사리손으로 전한 밀알 한 알

심심치 않게 언론에 회자되는 한국 교회의 코로나 집단감염 사태로 인해 믿지 않는 이를 전도하는 것이 조심스러운 때이다 보니 처음에는 ‘예친소’가 저에게 부담으로 다가왔습니다. 여름성경학교 신청기간이 끝나갈 무렵, 기대보다는 우려가 큰 마음으로 아이들에게 “혹시 여름성경학교에 초대하고 싶은 친구 있어?”라고 물었습니다. 답이 없을 거라는 제 예상과 달리 아이들은 흥분한 모습으로 각자 같은 어린이집에서 교회를 다니지 않는 친한 친구의 이름을 말하며 러브레터를 쓰겠다고 했습니다. 엄마, 아빠와 편지 문구를 상의한 뒤 고사리손으로 편지를 써 내려가는 아이들의 모습을 보니 하나님께서 참 기뻐하시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친구들의 부모님께 아이들이 집중해서 편지 쓰는 모습을 담은 사진과 러브레터를 문자로 보내드렸더니 반갑게 맞아주시며 함께 참여하겠다고 화답해 주셨습니다. 비록 코로나 바이러스의 확산세가 심각해져서 드라이브스루 행사에 친구들이 참석하지는 못 했지만, 교역자 분들께서 정성스레 준비해주신 여름성경학교 프로그램과 키즈박스 덕분에 아이들의 우정이 더욱 돈독해질 수 있었습니다. 또한 예수님이 보내 주신 편지와 선물로 인해 저희 아이들에게 이번 여름성경학교는 ‘전도’의 의미를 알게 된 소중한 기회였습니다. 아이들이 땅에 뿌린 한 알의 밀알이 하나님을 통하여 많은 열매를 맺게 되길 소망합니다.

박병기 집사 / 유아부 박하민, 유치부 박하준 아빠



부모 소감

세심한 준비 돋보인 프로그램

샬롬, 저는 유치부에 다니고 있는 이예슬 어린이의 엄마 이효신입니다. 생각지도 못했던 코로나 전염병으로 인해 아이들이 교회에서 예배드리지 못한 채 긴 시간이 흘러가고 있어 안타까운 마음이 나날이 커져가고 있던 중에, 2021 여름성경학교 “와! 하나님이다!”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아이들이 교회에 있는 느낌이 들 만큼 세심하게 챙겨주신 성경학교 패키지 키즈박스과 만나데이 그리고 여러 프로그램 하나하나가 준비하신 교역자님들과 선생님의 노고가 느껴져 마음이 따뜻해지고 감사한 시간이었습니다. 맛있는 음식을 좋아하고 먹는 것에 진심인 예슬이는 특히 ‘푸딩 만들기’시간과 전도사님께서 이야기를 들려주시는 말씀 시간이 좋았다고 하네요. 화면으로 전도사님과 선생님을 만나는 것만으로도 반가워하는 예슬이를 보니 하루빨리 성전에서 예배드리는 시간이 속히 오기를 소망해 봅니다. 한 달간의 즐거운 성경학교가 끝나는 마지막 날에는 예슬이도 저도 아쉬워하는 마음이 컸습니다. 다음 성경학교를 기다리는 시간마저도 저희에게는 감사하고 은혜가 되는 시간이 될 것 같은 생각이 드니 다시 한 번 목사님, 전도사님, 그리고 선생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이효신 집사 / 유치2부 이예슬 엄마



부모 소감

값지고 귀한 믿음의 유산

하울이의 첫 번째 여름성경학교!

비록 유튜브로 진행되었지만 첫째 날은 기프트박스 받으러 교회에 갈 수 있었습니다. 포토존에서 사진도 찍고 전도사님도 뵙고 비누방울 놀이도 하고 의미 있던 하루였어요.

“와~ 하나님이다!” 이번 여름성경학교 주제처럼 우리 하울이가 언제나 어디서나 하나님을 만났을 때 “와~”하는 기쁨과 감사의 함성을 내지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름성경학교 키트를 해보면서 마른 뼈가 살아나는 생명을 주신 하나님, 우리의 생명 되신 하나님을 알아갈 수 있는 귀한 시간이었지요. 부디 내년 여름성경학교는 교회에서 친구도 사귀고 하나님과 더욱 깊이 교제하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울아,

엄마 아빠가 가장 값지고 귀한 믿음의 유산을 하울이에게 물려줄 수 있도록 노력할게. 그리고 함께 예배드리고 서로를 위해 기도하는 엄마 아빠가 되어줄게. 사랑해♥’

하울이가 귀한 경험 할 수 있도록 애써주신 목사님, 전도사님, 선생님 감사합니다!

정유선 집사 / 하임 아기부 서하울 엄마



“2021 바이블 시간여행 : 에스겔과 비밀의 문”

유소년숲 여름성경학교는 ‘2021 바이블 시간여행 - ‘에스겔과 비밀의 문(겔 37:5)’ 이라는 주제로 7월 24일(토)부터 25일(주일)까지 진행되었습니다. 오프닝예배를 시작으로 준비된 20개의 영상과 실시간 ZOOM으로 함께 했습니다. 유소년숲 약 300여 명의 아이들이 교사들과 온라인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즐거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들어가며

유소년숲 사역 중 가장 크고 중요한 사역은 여름성경학교입니다. 주님의교회 유소년숲은 여름성경학교를 통해 말씀을 집중적으로 나누고, 평소 하지 못했던 다양한 활동을 하며 신앙의 추억을 만들어 왔습니다. 하지만 현재 우리가 마주한 상황은 이전과 많이 다릅니다. 예전처럼 함께 모이지 못하고 누군가는 가정에서 누군가는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우리 유소년숲은 작년 2월부터 서로의 얼굴을 온전히 마주 보며 이야기를 하는 것조차 어려운 현실 속에 있습니다. 작년에 이어서 올해 성경학교도 예외는 아니었습니다.

이러한 때에 우리가 해야 하는 일은 상황과 환경 때문에 멈추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의 계속해서 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를 위해 우리는 아이들이 예배하며 말씀을 배우는 소중한 현장인 ‘교회’그리고 ‘가정’이 함께 힘을 모아 다음세대를 말씀 위에 세우는 일을 통해, 가정에서 신앙의 대잇기가 계속 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번 여름성경학교에서는 ‘에스겔’선지자의 이야기를 함께 나누었습니다. 에스겔은 절망에 빠진 사람들을 위로하고 하나님께서 보여 주시는 희망과 회복된 이스라엘을 전했기 때문입니다. 이번 여름성경학교를 통해 하나님께서 생명을 살리시며, 생명을 주관하시는 분임을 알게 되고, 우리에게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통해 영원한 생명을 주셨음을 깨닫게 하는 여름성경학교였습니다.



(1) 가정으로 여름패키지 발송

온라인 성경학교에서 가장 먼저 해야 할 것은 가정에서 진행할 수 있도록 패키지를 보내는 일입니다. 성경학교 패키지 구성품은 성경학교 교재, 가정환경구성 패키지, 성경학교 일정표, 특별활동 패키지 4종(마시멜로우 아미와 생명수예이드, 생명나무 액자 만들기, 생명이 쭉쭉 개운죽!, 살아나고 회복되는 지구별), 성경학교 티셔츠, 맛있는 간식으로 채워졌습니다. 더운 여름 날씨에도 불구하고 유소년숲 많은 선생님들의 기도와 헌신으로 성경학교 패키지를 어린이들의 각 가정으로 발송할 수 있었습니다.

(2) 가정을 성경학교 장소로 장식해요!

보통의 성경학교는 함께 모여 기도로 준비하며 성전을 장식함으로 시작됩니다. 그러나 올해 여름성경학교 장소는 각 가정이었습니니다. 그래서 성경학교가 진행되는 장소를 성경학교의 터로 준비하는 과정이 가장 먼저 시작되었습니다. 아이들을 준비된 패키지와 안내영상으로 가정을 성경학교 장소로 장식하며, 먼저 마음과 기도로 성경학교를 준비했습니다.

(3) 엘키즈(L-KIDS) 찬양팀과 함께 준비!

하나님은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분입니다. 유소년숲에 어린이 찬양팀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오디션을 통해서 선발된 엘키즈는 여름성경학교를 위해서 2달 전부터 부모님들과 함께 기도하며 연습으로 준비했습니다. 12명의 엘키즈 어린이들이 여름성경학교 주제곡과 홍보영상을 촬영하며 많은 은혜가 흘러 넘쳤습니다.

(4) 선생님과 함께 하는 성경학습과 특별활동!

여름성경학교는 소그룹 활동이 집중적으로 이루어지는 때입니다. 사실 올해 유소년숲 어린이들은 담당 선생님을 한 번도 만나지 못하고 2021년을 맞이했습니다. 하지만 유소년숲 11명의 선생님(박기운, 박민영, 전운, 장병남, 노정연, 박시준, 이경아, 이세호, 최정혜, 김영림, 조예원)과 영상으로 만날 수 있었습니다. 준비된 영상으로 유소년숲 어린이들은 말씀을 배우고, 찬양하며 특별활동으로 이어갔습니다. 영상으로 아이들과 소통하며, 말씀을 가르치고 배울 때 그 어느 때보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쁨으로 가득했습니다.



(5) 코로나19시대 학부모-자녀 소통 코칭교육

팬데믹 상황은 우리 가정의 삶을 완전히 바꾸어 놓았습니다. 온라인수업으로 가정에서 부모의 역할은 크게 바뀌었습니다. 이러한 시대의 흐름에 기독교 가정문화가 더욱 중요해졌습니다. 유소년숲 부모님들과 교사들을 초청하여 기독교 가정문화 전문가를 모셨습니다. 코로나19 시대의 신앙교육을 점검하고, 위로하며 도전하고 부모가 먼저 예수님을 소망으로 삼는 귀한 시간을 가졌습니다.

(6) 유소년숲 보이는 라디오(유!보라! 시즌2)

성경학교 둘째 날 유소년숲 아이들을 실시간 ZOOM으로 만날 수 있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글 겹, 너의 눈코입, 찾았다 성경책에서!, 뒤죽박죽 미션 찾기, 나는 명탐정 게임’을 통해서, 자칫하면 지루할 수 있는 성경학교에 성경퀴즈와 더불어 즐거운 게임과 상품으로 서로 하나되는 의미있는 시간을 보냈습니다.

2022년 여름성경학교 기대하며

여전히 어렵고 막막하고 불안한 상황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유소년숲 어린이 사역을 어떻게 해 나가야 할까, 올해 성경학교는 어떻게 해야 할지 걱정과 고민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확실한 것은 어떠한 상황도 주의 말씀이 전해지는 것을 막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상황과 우리의 생각을 뛰어넘어 일하시는 분이심을 믿습니다.

유소년숲 여름성경학교를 자녀들과 함께 진행하며 또 많은 어려움과 고민들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말씀전하는 사역을 포기하지 않는 모든 유소년숲 교사와 부모님 덕분에 은혜롭게 달려 나갈 수 있었습니다.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부모 소감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려요 !!

이번 여름성경학교, 재미있는 활동도 많고 말씀과 활동들이 잘 맞아서 생각도 많이 해보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전도사님, 선생님들 얼굴도 오랜만에 뵈고 좋았네요. 준비하시느니라 고생 많으셨어요. 늘 감사합니다!!

박래인 어머니

무더운 여름에, 코로나라는 어려운 상황에서도 유소년숲 여름성경학교를 정성껏 준비하시고 알차게 운영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덕분에 즐거운 활동 가운데 윤채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스며들어서 건강한 신앙이 자라는 양분을 만들어 주셔서 감사드려요!

김윤채 어머니

다음 성경학교에선 보조교사라도 꼭 지원해서 돕기로 마음먹었습니다. 그동안 봉사하셨던 여러 선생님들과 도움의 손길이 얼마나 헌신적 이었는지 감사감사 또 감사입니다!

권수연 어머니

시간이 오래 걸렸지만 끝까지 정성껏 만들었습니다. 알찬 성경학교 준비해주셔서 뜻깊은 시간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승림 어머니

코로나로 힘든 삶 속에서 아이들이 수련회를 하게 되어 즐거워하니 보기 좋아요!

정하은, 정세은 어머니

시연이에게 꼭 찬 성경학교였습니다. 함께 한 하민이는 성경학교 전날 잠도 못자고 설레었다고 했어요!

김시연 어머니

더운 여름에 준비하시느라 고생많으셨어요! 직접 만나지는 못했지만 집에서 활동하며 너무 즐거운 시간이었습니다^^ 건강 조심하세요 ~~!

이가윤 어머니

안녕하세요! 저와 아이들은 교회를 그리워하며 잘 보내고 있어요^^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이 하셨을 것 같아요. 교역자분들의 수고로 아이들이 믿음 지키며 하루하루 잘 성장하는 것 같아요. 항상 감사합니다. 더운데 건강 조심하시고 어서 교회에서 뵈길 소망합니다.

정은유, 정하연 어머니

주말에 정말 열심히 따라했어요 ^^* 준비해주신 분들 너무 감사드려요. 진짜 일상의 소중함이 간절한 하루하루입니다. 준비하시면서 신경 많이 쓰신 것이 눈에 보였어요.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모두 교회에 나가서 성경학교 참여했으면 좋겠습니다. 내년에는 꼭 할 수 있기를 기도하겠습니다. 정말 고생 많으셨어요 ^^*

백은혜 어머니



교회 소식 | 청소년숲 온라인 여름 수련회
옴니버스 챌린지

“잠깐 멈춰 함께 웃는 ‘10대’ 그리스도인”

청소년숲 2021년 여름수련회는 겨울 수련회에 이어 옴니버스 챌린지-시즌3로 준비되어 7월 25일(주일)~8월 1일(주일)까지 진행되었다. 코로나19로 인해 함께 모일 수 없는 상황이었지만, 주일에는 온라인으로 마음 모아 예배하고, 평일에는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챌린지(데이 미션)와 실시간 소통 프로그램에 참여하면서 잠깐 멈춰 자신을 돌아보며, 주변을 돌아보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웃는 귀한 시간을 가졌다.

▶ 수련회 주제 “잠깐 멈춰 함께 웃는 10대 그리스도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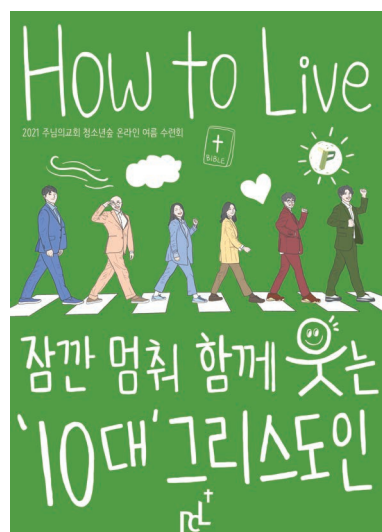
- 1) **잠깐 멈춰** : ‘멈춤’이 우리의 인생의 중요한 일부분임을 인식하고, 지혜롭게, 용기를 가지고 ‘멈춤’을 도전하고 만나고 경험해 본다.
- 2) **함께** (☺(보다, 웃다)) : 함께 멈춰, 하나님의 시간 안에서 우리의 삶의 방향과 의미와 목적을 새롭게 바라보고, 삶을 축제와 선물로 받아들이며 기쁨과 즐거움을 만끽한다.
- 3) **‘10대’ 그리스도인** : 우리의 정체성은 ‘그리스도인’! 세상과는 다른 길을 가며, 세상과는 다른 눈을 가지고, 세상과는 다른 ‘도움’을 구하며,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구원과 생명이 흘러가는, 복된 삶을 살아간다.

이번 수련회는 청소년들이 하루하루 빠르게 흘러가고, ‘빨리빨리’를 외치는 세상 속에서 ‘멈춤’의 지혜와 용기를 가지고, 삶의 방향과 의미를 깨달을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기획하였다. 이번 수련회는 특별히 주님의 교회 협력 교회 20여 명의 친구들과 청소년숲 부모님들 40여 명, 그리고 제주, 미국 등의 주님의 교회 청소년숲 가족까지 총 290여 명의 친구들이 함께 보고, 함께 웃는 의미 있는 시간이었다. 우리 청소년들이 수련회를 통해 경험한 멈춤의 시간을 기억하며, 주어진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시간을 살고, 삶의 방향과 목적을 새롭게 바라보며 활짝 웃을 수 있기를 소원한다.

▶ “잠깐 멈춰 함께 웃는 10대 그리스도인”

수련회 주제 말씀 : 시편 121편 1-2절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은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주일	월	화	수	목	금	토	주일
AM 9:00 오프닝 예배	AM 11:00 사전 zoom 미팅	데이미션 (아무에 2개씩 OPEN) AM 9:00 데일리 라디오, Stop for you (유튜브) PM 2:00 틈새미션 (zoom) AM 9:00 ~ PM 4:00 순무마켓 (VIP어플)				Go Go 미션	AM 9:00 클로징 예배
(start mission) 굿박스 인증샷	잠깐 멈춰 스마트폰 '다짐의 시간'	탄소 다이어트 (강기 프로젝트) 5000원 = 나무 500개 PM 10:00 ~ 잠자기 전까지 잠깐 멈춰 스마트폰 PM 9:00 온실한 만남 수글수글 PM 9:00 온실한 만남 수글수글 순퀴즈 순데블럭				휴식	VIP 시상식

◀ 2021년 청소년숲 여름 수련회 시간표이다. 어떻게 살아야 (how to live) 할지 깊이 생각하고, 웃을 수 있는 챌린지 뿐 아니라 학업 스트레스를 해소할 수 있는 재미있는 프로그램으로 다채롭고 풍성하게 구성되었다.

▼ 청소년숲 앱(VIP Ministry)
청소년숲 앱을 통해 더 많은 수련회 후기 및 다양한 청소년숲 사역 내용을 살펴볼 수 있다.



구글 플레이 스토어



앱스토어



교회 소식 | 청소년숲 온라인 여름 수련회
청소년들, 교사들, 부모님들이 말하다

잠깐 멈춤의 시간을 통해 자신, 함께하는 이들, 그리고 하나님을 발견한 힐링의 시간

1. 청소년들이 말하다

“코로나 때문에 어느새 나도 주님을 생각하기보단 의무적으로 떠올리고, 당면한 일과 과제에 대해서만 집중을 했던 것 같다. 여름 수련회를 통해서 주님이 내 마음에 계시는구나 생각을 다시 한 번 하게 되었고, 바쁜 삶 가운데에서 조금이나마 쉬와 재미를 얻었던 시간이었다.” 장윤태 / 고1

“수련회를 마치면서 이렇게 소감문을 쓰다 보니 이번 수련회를 다시 돌아보게 됐고 얼마나 좋은 시간이었는지를 알게 됐다. 이번 수련회 준비하신 모든 분들께 감사하다는 말을 하고 싶다. 잠깐 멈춰 함께 웃는 10대 그리스도인! 정말 행복했던 시간이었다.” 윤예주 / 중1

“솔직히 시작할 때만 해도 “온라인으로 하는 거 얼마나 재밌겠어?”라고 생각했지만, 그 생각이 틀렸다는 것을 이번 수련회를 통해 알게 되었다. 또한 기도예 대한 교훈도 배울 수 있어서 나에게는 굉장히 뜻깊은 수련회였던 것 같다.” 이윤수 / 중2

“수금수금, 틈새미션, 사전 줌 미팅, 데일리 라디오 등 다 같이 함께하는 활동이 재미있었다. 특히 수금수금은 진짜 내가 수련회 장소에 와 있는 듯한 느낌을 불러일으키고 생일 축하도 해주어서 엄청 감동을 받았다.” 배준한 / 중2

“잠깐 멈춰 스마트폰을 통해서, 처음에는 핸드폰을 사용하지 않는 것에 불편함을 느꼈지만. 나중에는 나는 책을 읽거나, 가족과 소통을 하는 더 건강한 생활을 할 수 있었다. ... 여름 수련회에 참여하면서 여러 감정을 느낄 수 있었다. 모든 감정들은 긍정적이었고, 나를 밝은 사람으로 만들어주었다. 하나님과 더 가까워질 수 있는 좋은 기회였다고 생각한다. 겨울 수련회에도 꼭 참여할 것이다.” 문수민 / 중1



잠깐 멈춰 스마트폰

화, 수, 목, 금 오후 10시부터 미디어 사용을 멈추는 프로젝트를 진행했다. 의도적 멈춤을 통해 하나님과 함께 그리고 가족과 함께 행복한 시간을 보냈다. (가족 모두가 참여하는 프로젝트)

“많은 도전을 할 수 있어서 좋았고, ‘틈새미션’이나 ‘은밀한 만남 수금수금’이라는 것이 되게 재미있었고, 또 ‘데일리 라디오’도 아침마다 보는 게 즐거웠습니다. 틈새나 은밀한 만남을 통해 댓글로 서로 대화하고, 서로의 말로 웃을 수 있는 즐거운 시간을 보낼 수 있어서 정말 좋았습니다.” 박정윤 / 중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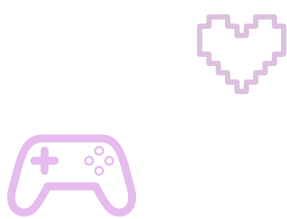
“하나님과 더 가까워졌다는 생각이 들어 좋았고 <그리스도의 집>이라는 책도 읽으면서 하나님에 대해 더욱 깊이 생각하게 되었고, 비록 교회에서 다같이 만나서 우리끼리 모여서 얘기하는 것은 아니었지만 줌이나 앱을 통해 소통하고 얘기하고 퍼니 레코딩을 통해 재밌는 이야기도 공유하고 서로 미션을 하고 퀴즈를 풀면서 서로 가까워지고 친근해지는 느낌이 들어서 정말 좋았고 행복했다.” 우민수 / 중2

“나는 원래 멈춤이 시간만 날리고 좋은 것은 하나도 없다고 생각했는데 멈춤이 있음으로써 나를 재충전 할 수 있고 여전히 일하고 계신 하나님도 만날 수 있는 뜻깊고 좋은 시간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 정세은 / 중1



틈새미션

화, 수, 목, 금 오후 2시에 청년생, 교역자들과 함께 zoom에서 함께 게임을 하며 소통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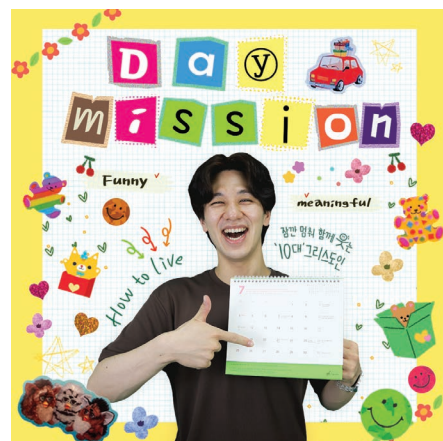
은밀한 만남 수금수금

수요일, 금요일 오후 9시 유튜브 라이브로 유명 BJ와 함께 데이미션 후기를 나누고, 신나는 게임과 먹방을 통해 힐링하면서 하루를 마무리하는 시간을 가졌다.



데일리 라디오

수련회 기간 아침 9시에 데일리 라디오 Stop for you가 유튜브로 공개됐다. 라디오에서 데이미션을 공개하고, 당일 프로그램을 소개했다.



데이미션

매일 2개(보는 미션, 웃는 미션)의 데이미션이 주어졌다. 각자의 자리에서 자유롭게 미션을 수행함으로 잠깐 멈춰 나와 우리를 '보고', 하나님과 함께 '웃는' 시간이었다.



교회 소식 | 청소년숲 온라인 여름 수련회
청소년들, 교사들, 부모님들이 말한다

“이번 수련회를 통해 하나님께서 잠시 쉬어가라고 나에게 말씀해주시는 것 같다. 잠깐 쉬어감으로써 주변도 한번 둘러보고, 스스로가 스트레스 받지 않는 상황을 보여주신 것이다. 친구들도 온라인으로 만나고, 전도사님, 목사님의 활기찬 목소리를 들으니 나도 모르게 몽클했던 것도 있다.”

우정수 / 고1

“이번 기회에 하나님과 더 소통하는 기회를 얻었어요. 제가 원래 큐티도 잘 안 하고 하는데 책도 읽고, 미션도 수행해서 하나님과 더 가까워진 느낌입니다. 다음 수련회도 참가하고 싶어요.”

이서린 / 중1



지구를 위해
우리가 할 수 있는 일

▶ 옷, 가방, 모자, 신발, 악세서리

- 옷장 정리
- 소비를 잠깐 멈춰!
- 아껴쓰고, 나눠쓰자!

순무마켓

청소년숲 버전 당근마켓으로 수련회 시작 전, 기부를 받아 온라인 중고마켓(청소년숲 VIP 앱)을 형성했다. 모든 수익금은 도움이 필요한 이웃에게 전달할 예정이다.



순퀴즈 온더 블럭!

How to Live

10대 그리스도인

순퀴즈 온더 블럭

순퀴즈 온더 블럭은 ZOOM으로 진행되는 3:1 인터뷰 프로그램으로 온라인 심방 및 퀴즈 프로그램이었다. 깊은 대화도 나누고, 서로의 삶을 공유하며 퀴즈도 푸는 즐거운 시간이었다. to be continued.



“순퀴즈 온더 블럭. 난 사실 유퀴즈 온더 블럭의 애청자(일명 ‘자기님’)여서, 매우 반가운 미션이었다. 짧지만 웃게 해주시고 이번 미션 때뿐만 아니라도 늘 깊은 관심과 사랑을 주시는 목사님, 전도사님께 정말 감사했고, 예수님의 사랑이 이런 게 아닐까 라는 생각을 했다. 앞으로 다시 일상으로 돌아가 살아갈 때에도 수련회에서 느낀 삶과 쉽게 가질 수 있는 가족과의 시간의 소중함 그리고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 계획하심과 인도하심을 늘 잊지 않고 살아가기를 기도하며 이번 수련회를 마치고 싶다.”

지수현 / 고3

“가끔은 힘들 때, 의도적 멈춤으로 우리 10대 그리스도인들과 전도사님들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고 힘낼 수 있을 것 같다.”

이주형 / 중1

“저의 작고 작은 행동인 ‘걷기’가 지구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친다는 점이 인상 깊었습니다. 이번 수련회는 제가 잠깐 멈춰 친구들과 함

께 웃을 수 있었던 기회를 만들어준 좋은 경험이었습니다. 이번 주 내내 하루하루 값졌던 것 같습니다.”

이서강 / 고1



탄소 다이어트

탄소배출을 줄이기 위해 청소년숲 가족들과 함께 ‘걷기 프로젝트’를 진행했다. 그 시간을 통해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고, 우리가 얼마나 탄소를 소비하며 살았는지 돌아보며 탄소를 줄이는 여러 가지 실천 방법을 고민했다.



2. 교사들이 말한다

“우리 아이들이 주제 말씀처럼 힘들고 어려웠을 때,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찾는 자녀들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믿음의 자녀들이 온라인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만나 귀한 수련회를 참여하게 됨에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이주연 사모 / 서면교회

“시즌1,2를 아이들과 보내면서 시즌3이 얼마나 더 새로울 수 있을까? 했는데 진짜 확~~달라진 수련회에 놀라고 또 놀랐다. ... 이번 수련회에는 부모미션도 함께 있어서 어떻게 진행되는지 궁금했는데... 부모님 방에 들어가서 하나하나 클릭하여 보면서 참 주님의교회 청소년숲이 더 감사해지는 순간이었다. 사실 부모인 우리도 목말라 있었는데 그 목마름까지 그냥 넘기지 않고 갈증을 해소해주시는 수련회라니! 감히 그 어떤 장년부에서도 채울 수 없는 부분을 아이들과 미션을 수행하면서 채울 수 있어서 너무나 감사한 시간이었다고 생각이 된다.”

송영주 / 여와나 트랙 디렉터

“멍 때리고 뒹굴뒹굴하고 잠자기를 좋아하며 살던 나에게 하나님은 분홍신을 신고 계속 춤을 춰야 되는 동화 속 주인공처럼 계속 무언가를 해야만 하는 성인이 되는 삶을 살게 하셨다. 늘 최선을 다해야 하고, 쉬고 있으면 불안하기조차 하는 워크홀릭의 삶으로 살아왔다. 잠깐 멈춰. 얼마나 좋은 말인가. 나를 돌아보며 내가 어떻게 살고 있는지, 무엇을 하고 싶은지를 보는 시간.”

정재영 / 중등부 지도권사



walkon

송영주/트랙/교... 7,093 걸음

데일리브리핑 나의 활동 분석 >

걷기운동 22분 권장 36분

파워워킹 54분 권장 25분

오늘, 목요일 2021/07/29



선착순퀴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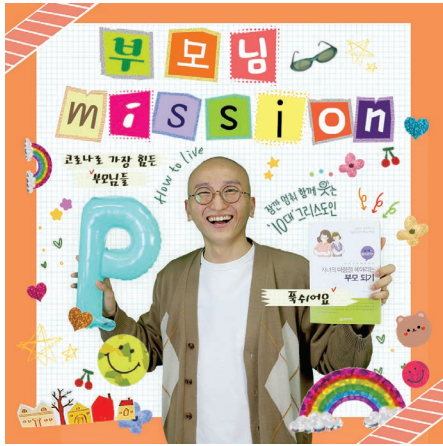
타임당 딱 1명씩만

타임은 글에 공개됩니다.

1. 타임별 댓글을 가장 먼저 다는 학생이 순퀴즈 인터뷰 권 획득!
2. 해당 시간에 순퀴즈 홈으로 입장하여 3:1 인터뷰 진행
3. 인터뷰 마지막에 퀴즈에 성공할 시 선물을 획득!

인터뷰 쿠폰 신청 가져오

3. 부모님들이 말하다



부모님 미션

이번 수련회는 특별히 부모님도 함께했다. 부모님들을 위한 특별 미션과 굿즈박스를 제공했다. 코로나로 인해 누구보다도 지쳐있을 부모님들에게 잠깐 멈춰 자신을 돌아보고, 하나님과 가족을 바라보며 웃는 시간을 보냈다.



“언젠가부터 수련회가 마치 내가 중·고등학생인 것처럼 수련회 미션을 기다리고 하나씩 해나가면서 누구보다 열심히 진심으로 임하고 있는 게 아닌가! ... 아이들과 같은 것을 바라보고 같은 것을 나누고 같은 생각을 했음에 감사한다. 그 가운데에는 이 모든 것을 예비하신 하나님이 함께하셨기에 가능했다는 생각이 든다.”

허가화 / 학부모

“지금까지 이런 수련회는 없었다. 이것은 블랙버스터인가 수련회인가? 영화 <극한직업>이 떠오르는 수련회였습니다. 영화에서는 범죄와 치근님이 소재였다면 우리에게 극한의 재미와 하나님이 주제였다는 차이점이 있겠지요. 블랙버스터급 굿즈박스의 설레임과 각종 미션, 그 안에 스며있는 보이지 않는 손길에 대한 감사와 감동, 그리고 말씀과 은혜까지 어느 것 하나 놓칠 수 없는 1주일간의 여정이었습니다.”

김강산 / 학부모

“이번 수련회를 통하여 가정의 신앙의 주체이고 가족구성원이 신앙교사라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달았습니다.”

이유진 / 학부모

“움츠리고 있는 학생과 부모까지도 참여시키고 굳은 마음까지 움직이게 한 재미와 신앙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아내셨습니다. 아이들에게 “이거 해라! 저거 해라!”가 아니라 각자 참여하고 때로는 아이와 정보도 공유하고 독려도 하면서 수련회를 즐겼습니다.”

신경숙 / 학부모

“‘잠깐 멈춰’서는 시간이 없다면 지금 내가 어디에 있는지 우리 아이가 어디에서 있는지 볼 수 없는 것 같습니다. 남들보다 더 빨리빨리 살아야 하는 이 세상에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따스한 시선으로 이웃을 바라보는 느리지만, 더 빛나는 가치를 앞으로 아이가 알아가고 경험해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영은 / 학부모

“아이들 수련회와 함께하는 거라 아이들과 똑같이 진행되는 줄 알고 할 수 있을까 걱정했는데 부모에 맞게 미션이 주어져서 오랜만에 성취감을 느낄 수 있었다.”

김현정 / 학부모

“코로나로 집에서 친구들 만남도 제한적인 아이들에게 흥부자 전도사님들께서 진행하시는 라디오는 단비 같은 존재였습니다! 비대면예배라 소통에 아쉬움이 많았는데 안 믿는 친구들에게도 거부감 없이 교회에 대한 열린 마음이 생길 수 있겠다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런 수련회를 통해 혼탁한 세상 속에 우리 아이들이 바로 서는 그리스도인으로 잘 자라길 기도합니다.”

박윤영 / 학부모

“부족하고, 쓰러지고, 실수하고 아직 배워가고 있는 아이들을 더 따뜻한 눈으로 바라보고 사랑하도록 내 삶을 잠시 멈추면서 생각할 수 있는 시간을 주심에 감사하다.”

박정수 / 학부모

“35도가 넘는 더위 가운데 수련회를 참여하게 되었지만 미션들을 수행하면서 오히려 가족을 생각할 수 있는 시간이었고 탄소 다이어트와 잠깐 멈춰 스마트폰, 잔반 없는 식사에서의 시간들, 하나하나가 모여서 아이들의 좋은 미래가 될 수 있음을 배우는 시간이었다. 세상은 무너지고 변하지만 변하지 않는 그리스도의 사랑이 있으니 오직 그 사랑에 힘입고, 부디 우리 딸이 하나님의 섭리 아래에서 살아가기를 기도해 본다”

이성미 / 학부모

“하나님의 울타리 안에서 웃고, 떠들고, 불평하고, 짜증 내고, 움직이고, 쉬고... 오늘도, 이 시간도 하나님의 시선 안에서 살고 있다는 것이 무척 좋습니다. 하나님과의 시간들이 특별한 것이 아니라, 그냥 일상이라는 것이 좋습니다.”

이승아 / 학부모

“지쳐서 미루던 성경 말씀을 새벽마다 읽게 된 수련회!! 이보다 더 좋을 수 있을까요? ㅎㅎ 딸 아이도 좋았겠지만 저는 더 좋았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

이정선 / 학부모

“‘잠깐 멈춰 STOP’ 잠깐 멈췄더니 우리 아들이 자주 보였습니다. 뭘 하는 민우가 아닌 민우 그대로의 모습이 보였습니다. 이번 수련회는 우리 아들의 수련회만이 아닌 저를 위한 수련회였습니다.”

김경숙 / 학부모



“지금 공동체를 꿈꾸다”

2019년 12월 주님의교회에서 처음으로 전도사 사역을 시작하자마자 이듬해 터진 코로나로 인해 나의 사역기간 동안 기존에 진행해왔던 오프라인 수련회는 없었다. 전도사로서 첫 수련회였던 겨울 수련회부터 코로나 방역수칙에 따른 온오프라인 병행 수련회를 진행했고, 이번 여름수련회가 네 번째로 준비한 온라인수련회였다.

처음에는 온라인으로 수련회를 준비한다는 것이 기존의 수련회 준비와는 다른 점들이 너무나도 많아서 앞이 막막했지만, 함께하는 교역자팀과 다재다능한 청년들이 함께 해주었기에 그리고 무엇보다 우리의 부족함을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 덕분에 네 번의 온라인 수련회를 잘 마무리할 수 있었다.

불안과 걱정으로 시작된 온라인 수련회가 이제는 감사와 기쁨으로 바뀌어 준비하고 진행할 수 있음에 다시 한번 이 모든 것을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린다. 또한, 청년숲을 포함한 주님의교회 모든 공동체가 이 시국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고자하는 말씀을 올바르게 경청함으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으며, 세상 가운데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그리스도인들이 되길 간절히 바란다.

김세연 전도사

1. 두 번째 온라인 수련회를 준비하며

다시 온라인으로 만나더라도, 피로도도 낮추면서 다양한 공동체 활동과 더 깊은 나눔까지 함께할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을 주셨습니다. 주님께 서는 나아지지 않는 상황 속에서도 단계마다 최선의 길을 보여주셨고 그 중에 특히 게더타운과 음악 예배, 키트 배송 관련 에피소드들이 생각납니다. 코로나 종식 이후가 아닌 '지금' 여기, 우리를 부르시고 진정한 '공동체'를 꿈꾸' 수 있게 하신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올려 드립니다. 박진실 / 23기

무더운 여름날이 가까워질수록 8월의 수련회는 한층 더 가까워졌다. 함께 밤새 찬양하며 부르짖던 여름밤도 이제는 나의 골방에서 해결해야 할 하나의 숙제가 되었다. 온라인 수련회 포스터에 적힌 장소는 “각자 일상

의 삶 한가운데 정한 그 장소”이었다. 비로소 나는 골방의 자리가 어색하다는 것을 느꼈다. 웅장한 음향도 현장감도 없는 초라한 골방의 자리였지만, 그렇게 나는 내 삶의 한자리에 하나님을 초대한다. 김장환 / 24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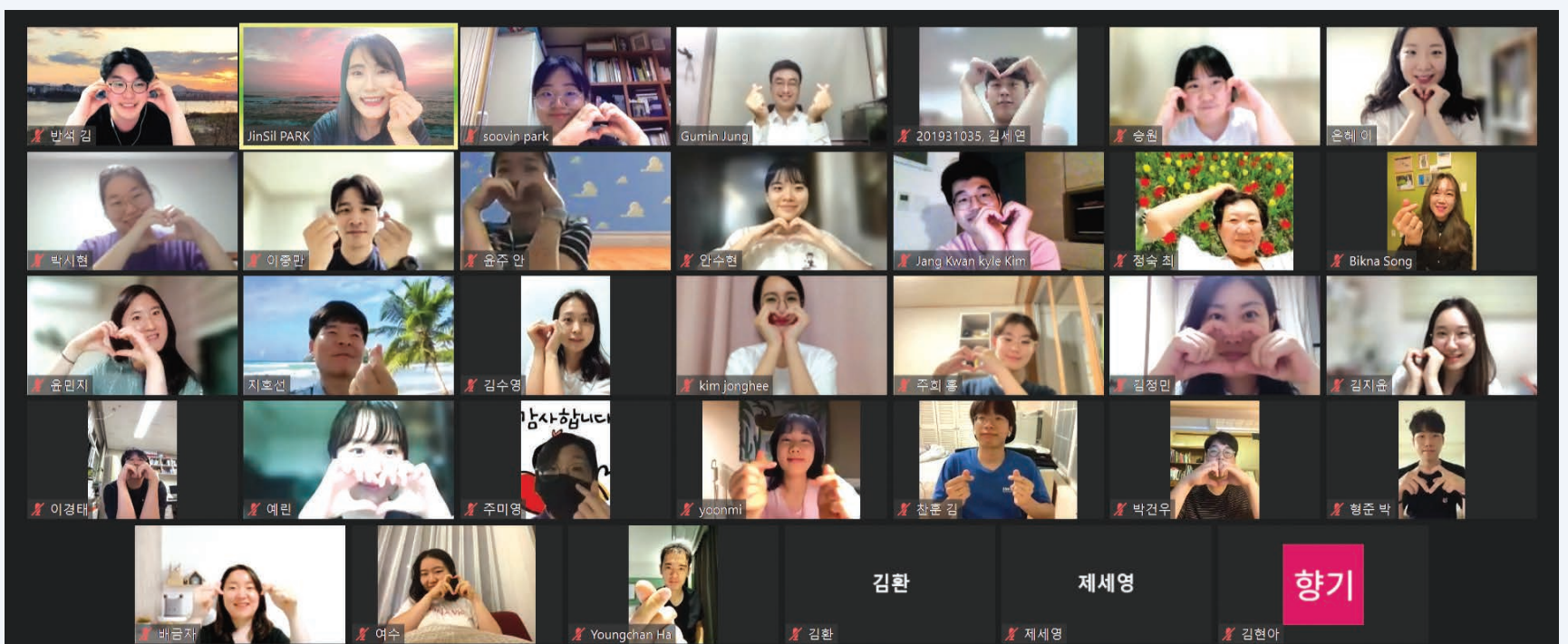
먼저 진행된 겨울 수련회를 통해, 온라인 수련회만의 장점과 기회를 많이 배웠습니다. 덕분에 여름 수련회의 준비는 걱정과 아쉬움 보다는 기대와 설렘을 가지고 시작할 수 있었습니다. 특별히 게더타운이라는 새로운 플랫폼을 사용하다 보니, 준비하는 과정에 늘 즐거움이 있었습니다. 여름 수련회를 돌아보는 이 시점에, 기대하던 수련회의 그림들이 무사히 그려진 것 같아 이끄신 하나님과 청년부 모두에게 감사드립니다. 안수현 / 29기

2. 주제와 말씀에 대해서

공동체를 꿈꾸다는 것은 코로나 시대 속에서 흩어져 있는 청년들을 단 순히 모아보자는 취지가 아니라, 많고 적음, 크고 작음을 떠나, 떨어져 있을지라도 연결되고 소통하자는 소망이라 할 수 있다. 그렇기에 이번 주제는 지금 상황에 정확하게 맞는 내용이었다.

말씀 속에서 우리가 배울 수 있었던, 진정한 공동체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결국엔 사랑과 섬김이 근간이 되어야 한다. 구성원들이 사랑과 섬김을 아는 사람, 예수님이 그러하셨던 것을 아는 사람으로 성장해나가는

것이 핵심이다. 공동체가 하나님의 뜻으로부터 시작되어 하나님 안에서 이루어짐을 깨닫고, 서로가 서로를 연결하여 올바른 나눔으로 이어갈 수 있었음은 이번 수련회의 은혜였다고 생각한다. 마지막으로 예수님은 수련회를 통해 “우리 청년숲 공동체 안에서 나는 무엇을 할 수 있을까? 나의 역할은 무엇일까?”라는 물음을 던졌다. 예수님이 찾는 한 사람이 내가 될 수 있도록 기도와 묵상 그리고 청년숲에서 진행하고 있는 성경통독을 통해 더 잘 알아가도록 노력해야겠다. 김준 / 21기



수용과 돌봄의 다윗 공동체, 사랑의 만찬이 있는 초대교회 공동체, 함께 모여 사랑과 선행으로 서로를 격려하는 히브리 공동체. 이처럼 모범이 되는 공동체를 이번 수련회의 말씀을 통해 만날 수 있었습니다. 저에게 각인되었던 말씀은 온전한 공동체의 모임은 하나님의 임재를 소망하는 모임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한,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는 불완전한 이때, 힘써 모여 서로를 향해 사랑, 믿음, 소망의 격려로 나아간다는 것입니다. 지금, 비대면으로 모임을 갖고 있지만 이렇게라도 모일 수 있는 것에 감사드립니다.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경험한 에피소드를 가지고 주 안에서 모임 가운데 서로 격려하고 성장하는 청년숲 공동체가 되길 소망합니다.

김지예 / 16기

"지금 공동체를 꿈꾸다" 처음 수련회 주제를 봤을 때 굉장히 기대되었다. 코로나로 서로가 대면은 못하지만 하나님 믿는 자녀로 서로가 하나됨을 누리고 공동체를 이루고 있다는 사실을 수련회를 통해 다시 한 번 깨닫게 되는 동기가 될 것이라는 기대감때문이었다. 주제말씀인 히브리서 10장 24-25절 처럼 우리는 비대면 방법을 통해 계속 모였다. 함께 모여 삶을 나누고, 미션을 수행하면서 모두가 함께 울고, 함께 웃는 시간을 가졌다. 수련회 기간을 통해 서로를 중보하고 우리가 공동체를 이룬것을 깨달았다. 이 시간을 허락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제세영 / 27기

3. 음악으로 드리는 예배에 대해서

특별히 섭외된 안음과 함께하는 음악 예배! 안음이라는 단체의 의미와 이들이 선보인 공연들로 장기간 지속된 코로나로 지친 마음이 위로되어 참 좋았습니다. 그중에서 조동화 시, "나 하나 꽃 피어"가 가장 인상 깊었는데요, '함께 서로를 섬기며 세우고 채우는 공동체로서 세상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자'라는 메시지와 견디고 이겨내야 하는 삶이 아닌 하나님과 동행함으로써 이 땅에서의 삶에 대해 묵상해볼 수 있었습니다.

이은혜 / 23기

지난 8월 6일부터 8일까지 '지금, 공동체를 꿈꾸다'라는 주제로 진행된 청년숲 수련회의 둘째날 예배는 앙상블 '안음'팀과 함께하는 음악예배로 진행되었다. 피아노, 바이올린 등의 악기와 소프라노 정민 자매님의 목소리가 하나로 어우러져 드러지는 찬양의 고백이 참으로 은혜로웠다. 이런 귀한 예배를 현장에서가 아닌 온라인으로 드릴 수 밖에 없는 상황이 조금 아쉽기도하지만, 한편으로는 이렇게나마 각자의 집에서라도 함께 드릴 수 있음에, 또 영상으로나마 이 찬양의 고백을 언제든지 다시 들

을 수 있음에 감사하기도 했다. 나중에 시국이 좋아지고, 기회가 생긴다면 다음에는 현장에서 청년들과 함께 다시 한번 더 이 감동과 은혜를 누릴 수 있는 시간이 마련될 수 있기를 바란다.

박시현 / 30기

'앙상블 안음'의 모든 멤버들은 '음악으로 드리는 예배'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기쁨을 감출 수 없었습니다. 우리가 모인 가장 큰 목적이자, 음악의 달란트를 주신 사람에게는 그 달란트를 사용해 예배 드릴 때 가장 최선의 모습으로, 가장 아름다운 모습으로 나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연습할 때도 자기 순서가 끝났지만 자리를 떠나지 않았습니다. 비대면, 제한적인 대면 예배가 지속되는 상황 속에서 우리의 연습 시간이 우리가 드리는 예배 시간처럼 느껴졌기 때문입니다. 음악은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는 힘이 있고, 찬양은 그 마음을 하나님께 연결하는 힘이 있습니다. '앙상블 안음'은 그 통로로 쓰일 수 있음에 감사하며 언제든지 하나님이 원하실 때 기꺼이 쓰실 수 있는 거룩한 통로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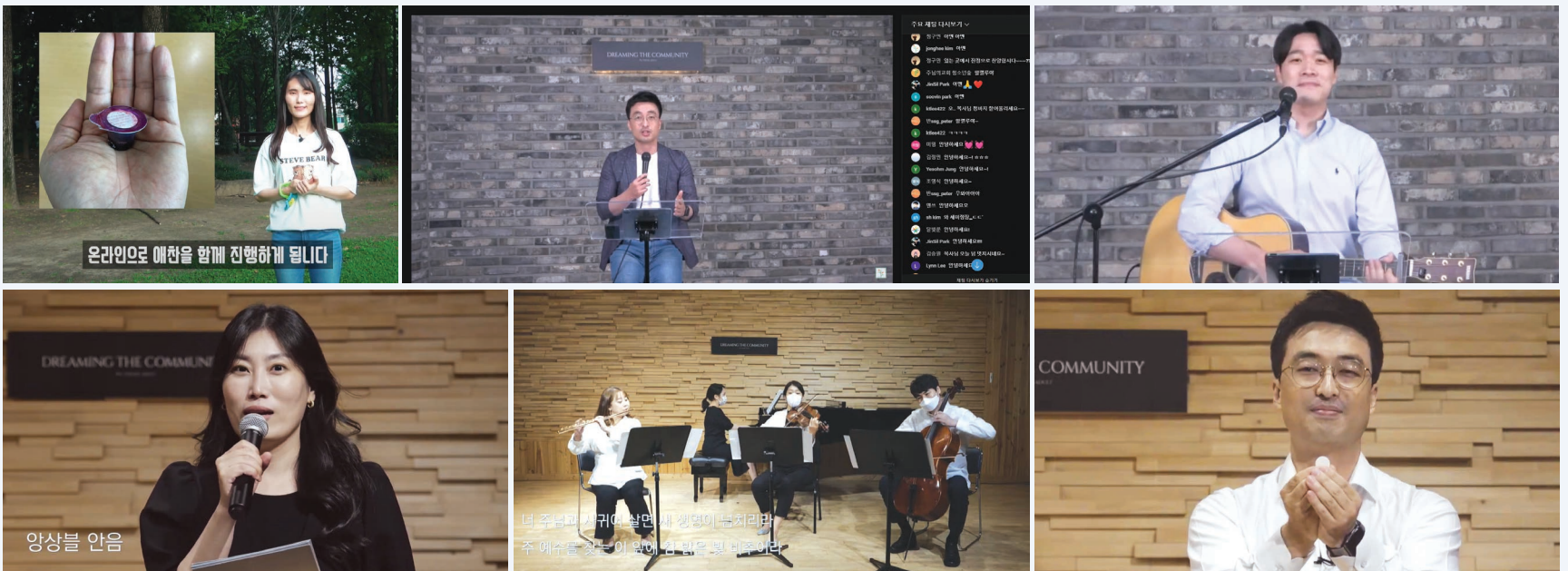
김정민 / 13기

4. 애찬과 Q.QQuaker's Question에 대해서

하반기 겨자씨원들과 함께 마음 속 깊은 대화를 할 수 있는 시간이었다. 조명은 어둡게 해서 내 자신이 보이지 않았지만 그랬기에 속마음을 내보이며 솔직하게 대화할 수 있어서 소중한 시간이었다. 나만 힘든 시간이 있는 줄 알았지만 각자 짊어진 슬픔과 고통이 있었고 함께 공유하고 나

누며 위로가 되어서 좋았다. 비록 온라인으로 수련회가 진행되었지만 이 시간을 통해 마음만은 더 가까워질 수 있었고 그리스도 안에서 공동체가 될 수 있었던 뜻깊은 시간이었던 것 같다.

김수영 / 24기



이번 여름 수련회 둘째 날은 “초대교회 공동체, 애찬”이라는 주제로 진행되었습니다. 앙상블 ‘안음’과 함께하는 음악 예배를 통해 귀한 찬송을 주님께 올려드리는 자리에 함께 할 수 있어서 좋았고, 또 특히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찬송을 연주할 때는 가사에 좀 더 집중하니 주님께서 마음을 감동시켜 주셔서 저도 모르게 울컥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음악 예배에 이어서 성찬식을 할 때는 비록 랜선이었지만 충분히 기쁘고 복된 만찬이었고, 같은 시간을 공유하고 함께한다는 느낌이 충분히 들 만큼 뜻깊은 시간이었습니다.

예배가 끝나고 2번째 조모임은 QQ 질문지를 가지고 진행되었는데, 조원들끼리 너무 부담스럽지 않으면서도 진솔한 얘기를 나눌 수 있는 시간이어서 정말 기억에 남습니다. 특히 저희 조는 서로 공감 가는 부분

도 많았고, 질문에 대한 경험이 딱 생각이 나지 않을 때에는 다른 친구들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자신을 돌아볼 수도 있는 시간이어서 더욱 뜻깊은 시간이었습니다.

홍주희 / 27기

수련회중에 온라인으로 애찬을 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었습니다. 비록 코로나19로 오프라인 예배는 못드렸지만, 미리 택배로 받은 애찬을 나누며, 주님의 뜻을 기억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QQ는 서로에 대해 알아가는 4가지 질문을 하는 시간이었는데, 제가 잘 인도할 수 있을지 걱정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다행히도 겨자씨원들이 진솔한 나눔을 하였고, 또 서로 공감함으로써 더 친목을 다지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또한, 서로 위로하고, 기도하는 시간을 가질 수 있었습니다.

하영찬 / 16기

5. Gather Town에 대해서

안녕하세요, 청년숲 26기 윤민지입니다. 코로나19로 2년 가까이 대면 수련회가 어려웠던 가운데, 게더타운을 통해 비대면으로 은혜롭고, 또 즐거운 수련회를 보낼 수 있었습니다! 게더타운을 통해 공동체 프로그램을 하며 오가는 중에 다른 지체를 만나고 친교를 나눌 수 있어 좁과는 또 다른 즐거움이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온라인 기도실, 게임과 같은 기능이 있어, 프로그램이 끝난 이후에도 자유롭게 기도와 교제를 할 수 있어 수련회의 묘미를 살릴 수 있었습니다! 어려운 상황 가운데도 새로운 수련회를 준비해주신 청년부 교역자분들, 임원단 감사합니다!

윤민지 / 26기

Gather town에서의 온라인 수련회를 통해 마치 현장 수련회를 와 있는 듯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가상현실 공간인 Gather town에 대예배당, 청년숲 빌리지조모임 장소, night beach나눔 공간 등의 공간맵을 만들고 아바타로 직접 이동하며 조모임과 공동체 프로그램을 진행하며 현장감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또한 정해진 순서 외의 시간에는 자유롭게 맵에 접속해 공간을 돌아다니며 여러 지체들과 함께 나눔과 교제의 시간을 보내며 공동체가 더욱 가까워지는 시간이었습니다.

박수빈 / 29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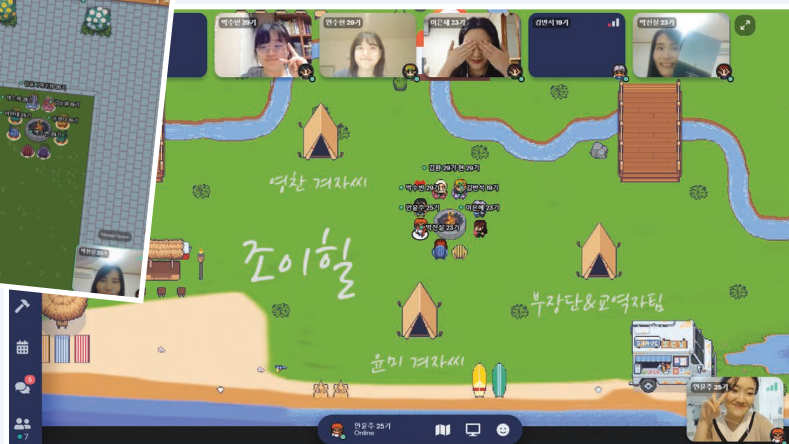
저는 이번 여름 수련회인 ‘지금 공동체를 꿈꾼다’라는 주제를 가지고 공동체 형성을 위한 프로그램으로 이번에 새로 도입한 메타버스를 기반으로 한 프로그램인 ‘Gather Town게더 타운’을 접하게 되었습니다. 첫 번째

날에는 같은 셀러자씨 조원 언니 오빠들과 함께 ‘Maze Walker메이즈 워커’라는 보드게임을 통해 서로에게 질문을 하고 답하는 방식으로 서로에 대해 알아가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두 번째 날에는 ‘투게더 탈출’이라는 방탈출 형식의 팀전 게임을 하게 되었는데 아무래도 문제를 풀어야 탈출할 수 있었던 게임 인지라 오랜만에 머리를 써서 힘들었지만 조원 언니 오빠들과 다같이 협력해서 문제를 풀어서 차례차례 방을 탈출해 나아가니 2등이라는 좋은 성적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세 번째 날에는 ‘롤링페이퍼’를 통해 서로에게 위로의 말을 해주기도 하고 수련회 기간 동안 좋았던 점들을 나누니 서로에 대한 우정도 더 돈독해지고 우리들만의 추억이 생긴 것 같아서 사진으로 캡처해서 간직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가장 신기하고도 재미있었던 점은 줌Zoom에서는 얼굴과 목소리를 들을 수 있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좋지만 같이 있다는 느낌이 덜하다는 아쉬움과 비대면이라 만나기 어려운 현실에서의 아쉬움을 게더타운에서 각자 만든 캐릭터를 통해 캐릭터들이 가까워지면 실제로 대면에서 서로가 점점 가까워질 때 소리가 들리는 것처럼 얼굴이 나오는 화면과 소리가 들리는 것을 보고 하나의 프로그램을 통해 만나는 것이지만 실제로 대면에서 만나는 것 같은 느낌이 들면서 실제로 같이 있는 것 같은 느낌을 받음으로써 아쉬움을 달랠 수 있었던 프로그램이었습니다! 이렇게 좋은 프로그램을 생각해내서 은혜롭고 뜻 깊었던 수련회가 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박예은 / 32기



정구민 목사



영화로 성경 읽기

<프로페서 앤 매드맨>, 어쩌서 이런 사람을

누구나 옥스퍼드 영어 사전을 알고 있다. 무엇으로 유명한지 알고 있는가? 처음에는 ‘잘 팔리는 내용으로 10년 안에 총 4권 출판’이 목표였으나, 무려 12권의 초판이 완성되었다. 발간을 기획한 지 70여 년 만이었다. 전산 시스템이 전무했던 1857년부터 1928년까지의 편찬 기간 동안, 다양한 문헌들을 추적하여 180만 개가 넘는 풍부한 인용문을 사전에 담아 내놓았다. 그리하여 이 사전은 세계 최대의 영어 사전으로 등극하게 된다.

이 실화가 대작 영화 <프로페서 앤 매드맨(The Professor and the Madman)>(2019)으로 탄생하였다. 사이먼 윈체스터의 논픽션 저서가 영화의 저본이었는데, 이 책은 아마존 베스트셀러 1위를 기록한 바 있다. 낯익은 배우들(멜 깁슨, 손 펜, 나탈리 도머, 스티브 쿠건, 에디 마산)의 명연기에 몰입하다보면, 코로나19로 인한 체중이 다 뚱뚱 만큼 희열을 느낄 것이다. 그동안 사회적 거리 두기를 핑계로, 우리가 무작정 미루어왔던, 희망의 공동체 의식, 배려, 우정, 헌신, 사랑, 열정이 이 영화의 구절구절에 담겨있기 때문이다.

자격 요건을 따지지 않으시는 예수님. 당신이 교수라면?

어려운 집안 형편으로 14살에 학교를 중퇴했기 때문에 대학교 학위도 없다. 별명 ‘교수’가 여러모로 어울리는 머레이(멜 깁슨)는 조력자 프레디(스티브 쿠건)의 천거로, 옥스퍼드 대학 출판국의 냉대와 무시를 견뎌내며, 사전편찬실 편집장으로 임용된다. 콧대 높은 옥스퍼드 출판국의 위원들은, 머레이를 얕잡아 본다. 영어를 쓰는 모든 이들로부터 사전에 어울리는 단어와 뜻 설명을, 우편으로 모집해보자는 머레이의 열정에 옥스퍼드 영감님들의 반문은 냉랭하다. “일반인, 아마추어를 쓰자는 말입니까?” 누구나 살면서 이렇게 쌀쌀맞은 취급을 당해보았을 것이다. 또한 누군가를 이런 질문으로 하대(下待)해본 적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자격 요건을 따지며 인터뷰하신 적이 있던가. 복음 속에서 초대 교회의 태동이 시작되어야 하는 역사적인 순간에도 예수님께서서는 랍비나 학자들을 물색하지 않으셨다. 내용을 경력도, 전문성도 없는, 판단력 결함의 인물들에게 중책을 맡기며 중요한 사역의 기틀을 잡아나가셨다. 예수님 부활의 순간에도 여전히 갈팡질팡하던 구제불능의 그들이었으나, 신약성경이라는 위대한 유산—영화 속 주인공 마이너가 선물받은 책의 이름도 <위대한 유산>이다!—이 그들의 손에서 빛어졌음을 기억하자.

차등을 초월한 대화를 나누어보았는가. 당신이 미치광이를 만난 교수라면?

옥스퍼드 영감님들의 예측대로 “일반인, 아마추어”는 큰 도움이 되지 않았다. 주옥같은 사전을 편찬하고자 하는 머레이의 순도 100%의 열정이 무력감으로 변질될 무렵, 기적의 ‘구세주’가 나타난다(“God has sent us a savior.”). 출중한 수준의 단어와 예문들을 일일이 발췌하여 대량 우편물로 발송하는 마이너(손 펜)였다. 머레이는 발신인의 주소를 들고 설레는 마음으로 그를 찾아간다. 그러나 마이너의 정체는 예수님의 제자들보다도 상태가 더 심각했던 의외의 인물이었다. 치료감호소에 구류된 미치광이 살인자 마이너는 처음에 벤치에 앉은 채로 머레이를 맞이했다. 마이너는 밝은 표정으로 머레이와 천재적 대화를 나눈다. 그러다가 슬며시 곤란한 표정으로 자신의 두 발에 감겨있는 쇠사슬을 드러낸다. 그러나 마이너는 뜻밖에 머레이로부터 서광(瑞光)을 선물받게 된다. 마이너의 어둠을 감싸안은 머레이의 모든 대사에서, 나는 눈물을 삼키느라 애썼고, 영화 속 마이너의 어두운 심령도 녹아내리기 시작했다.

새 삶을 살고 싶지만, 당신이 미치광이라면?

무결점의 학력과 배경에 총명함까지 갖춘 외과 의사 마이너는 어쩌다가 실성을 하였을까. 무엇 때문에 살인을 저지르고 영국의 치료감호소에 수감되었을까. 그가 종군 군의관이었던 시절, 탈영병의 얼굴에 달궈진 쇠로 낙인을 찍었다. 그 후, 마이너는 죄책감에 시달리며 정신병을 얻은 것이다. 자신을 죽이러 오는 탈영병의 환영에 쫓겨 다녔다. 미국을 떠나 영국으로까지 피신했지만, 연이은 착각을 이기지 못하고, 무고한 영국 시민 조지 메릿을 총으로 살해하게 되었다. 중죄인의 반성과 개과천선을 향한 몸부림은 인간 사회에서 좀처럼 공감을 얻기 힘들다. 그러나 마이너는 진정한 참회를 통해 구원을 받고자 처참히 노력한다. 이제 마이너에게는 그의 갱생 의지를 진심으로 응원하며, 힘을 주는 머레이가 있다. (“Perhaps God’s grace will come to her through your love, William.”). 심지어, 마이너를 사무치게 미워하던 일라자이(살해당한 조지 메릿의 미망인)도 마이너의 집념과 노력에 서서히 감응하게 된다. 그동안 사전 편찬 자원 봉사를 지속하면서 정서적 고립감을 조금씩 극복해 나가던 마이너에게 마침내 중세의 호전이 찾아오는 듯 했다. 그러나 안타까운 사건이 터진다. 증오의 장벽을 무너트린 일라자이가 마이너에게 사랑의 감정을 고백하게 된 것이다!



예수님께서 가르쳐주신 용서를 향하여. 당신이 미망인 일라자이었다면?

마이너가 속죄에 골몰할수록 그의 번뇌와 망상은 활동을 개시한다. 마이너가 정의하는 속죄는 영화에서 언급되는 ‘assythment’라는 단어에 담겨있다. ‘assythment’의 다양한 의미를 종합해보면, 스스로를 학대해서라도 죄과를 잊지 않으며, 피해자에게 양심의 거리낌 없이 전면적으로 변상하고 용서를 비는 것이었다. 따라서, 마이너는 일라자이의 사랑 고백을 뿌리치지도 못했다는 자책감의 늪에 깊이 빠져 급격히 판단력을 잃을 수밖에 없었다. 그는 다시 죄책감에 시달리기 위하여, 극단적인 자해를 저지른다. 신체 가학적이고 야만적인 정신병 치료도 마다하지 않는다. 마이너의 병증을 달래는 첫 계기가 되었던 사전 편찬 기고(寄稿)도 중단한다.

머레이가 황급히 치료감호소로 면회를 갔지만, 마이너는 이미 광기를 주체하지 못하는 모습으로 돌변하여 있었다. ‘assythment’라는 단어—자신의 처절한 소신을 담고 있는—를 제발 찾아보라고 머레이에게 울부짖는 마이너의 모습을 보며, 나는 일라자이의 용서와 사랑을 조심스럽게 재고해보게 되었다. 간음의 현장에서 불려온 여인을 예수님께서서는 용서해주셨다. 그리고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고 당부하시며, 새로운 삶에 대한 희망과 용기를 여인에게 불어넣으셨다. 세상은 중죄인의 장래에 관심을 갖기보다, 과거부터 따져묻고 정죄한다. 그러면서 죄인의 향후 개과 여부를 저울질한다. 하지만, 예수님께서서는 죄인의 입장을 신중히 헤아리시며, 상한 심령을 어루만져주신다. 몹시 뉘우치는 중죄인이 어두운 과거에 발목을 잡히지 않도록 도우시는 것이다, 그리고 더 나아가 미래의 사명을 갖도록 인도하신다. 그러나 영화 속 일라자이의 순수한 용서와 사랑에 이 부분이 결여되어 애석하다.

나의 발걸음은 이웃을 향하고 있는가. 교수와 광인의 사이에서.

쇠고랑과 수갑에 얽매었던 마이너는 간수 면시를 통해 머레이의 존재를 알게 되고 일라자이를 만나게 되었다. 쇠창살에 다리가 끼어 죽을 뻔 했던 동료를 응급처치로 구해준 마이너에게 면시는 세심한 관심을 기울이며, 끝까지 정성어린 도움의 손길을 베풀었다.

누가 뭐래도 옥스퍼드 영어사전에 가장 많은 기여를 해왔던 마이너의 정체가 세상에 알려지면서 비난의 여론이 들끓기 시작한다. 이에 옥스퍼드 출판국 위원들의 모함까지 가세하여, 머레이는 퇴출의 위기에 휘말린다. 머레이의 공든 탑이 무너지는 위기가 닥쳐왔지만, 그는 개의치 않고, 조력자 프레디와 힘을 합하여, 처칠 장관까지 찾아가 마이너의 석방을 위해 최후의 청원을 한다.

결국 처칠 장관의 인허를 받아, 무기수였던 마이너는 자유의 몸이 된다. 그의 고향 미국으로 추방되는 형식이었다. 그리고 머레이는 편집장에 복귀된다. 마이너가 미국에서 평화롭게 생을 마감한 이후에도, 머레이의 사후에도, 사전 편찬 작업은 꾸준히 이어진다. 1928년에 인류는 드디어 세계 최대의 옥스퍼드 영어 사전을 갖게 되었다.

사람들은 예나 지금이나, 일신상의 이유가 다급해질 때, 한층 더 이웃에게 무관심해진다. 이제는 코로나19 상황이 언제 종결될지 어느 누구도 예측할 수 없게 되었다. 그러다 보니, ‘사회적 거리 두기’가 ‘인간관계 절단의 단계’로 접어들고 있지 않은가? 이타적 공물을 망설이며, 도피의 수단으로 주님만 애매하게 부르짖고 있는 것은 아닐까? 2,000년 전의 예수님께서서는 고난 중에도 당대의 편견을 깨뜨리며, 다양한 부류의 사람들에게 편견 없는 바른 친구가 되어주셨다. 더 나아가 그들이 새 출발을 할 수 있도록 늘 놀라운 사랑과 관용을 보이셨다. 이렇게 차별 없이 존중하고 돌보는 진심을 서로에게 느낄 때, 망나니 같이 우리를 위협하는 절체절명의 번민도 칼춤을 멈출 것이다. 우리 같은 평범한 사람들의 손에도 들려있는 세계 최고의 <옥스퍼드 영어 사전(The Greatest Dictionary in Any Language)>도, 예수님처럼 이타적인 연대감을 몸소 실천한 이들의 선물일 것이다. 그들은 이렇게 예수님처럼, 사후에도 온 세상을 품으며 유구히 소명에 임하고 있다.

함줄함줄

광야의교회 소식

광야의교회 창립 10주년 감사예배 기도문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피 값으로 광야의교회를 세우시고 10년의 세월 동안 한결같이 동행하여 주신 에벤에셀의 은혜를 감사드리나이다. 광야생활 10년 동안 반석에서 물을 내시고 만나로 먹이시고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인도하시고 의복과 신발이 해지지 않게 하신 주님의 권능과 사랑을 감사드리나이다.

이제 주님께서는 연약하고 어리석은 저희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이곳 위례지역에 새 성전을 마련하시고 새로운 사역을 시작하도록 인도하여 주시오니 감사하나이다. 부족한 재정문제로 부르짖을 때 길을 열어 친히 마련하여주셨고 하나님 뜻에 부합하고 사람을 감동시킬 만한 새 성전으로 꾸며 주시오니 감사하나이다. 어리석은 저희들이 구하지 못한 것까지 모두 아시고 때를 따라 도우시는 기적의 주님께 감사하나이다.

이 교회를 분립시키고 든든한 후원자가 되어 이날까지 기도와 사랑과 물질로 뒷바라지하며 양육시켜온 주님의교회를 축복하여 주시오니 감사하나이다. 오늘 김화수 담임목사님과 믿음의 동역자들을 보내 주셔서 함께 감사예배를 드리게 하신 주님의 은혜를 찬양하나이다. 이제 넓은 전도영역을 주시면서 “강권하여 내 집을 채우라”, “깊은 곳에 그물을 내려라”고 명령하여 주시오니 감사하나이다.

주님! 저희들이 명령을 받았사오나 어리석고 무능하여 감당하지 못할까 염려하고 있나이다. 아모스 선지자가 자복한 것처럼 “광야의교회가 미약하나이다”라는 기도밖에 없사오니 부족한 지혜와 능력을 친히 불어넣어 주옵소서. 어깨에 감당하기 어려운 짐을 져사오나 사람의 판단으로 절망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도우심을 믿어 소망 중에 온전히 헤쳐나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좋은 프로그램을 마련하여 찾아가기도 하며 찾아오게 함으로써 이곳 주민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함께 우는 공동체 생활의 터전이 되게 하시고 세상살이에 지친 영혼들의 좋은 안식처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모두는 아론과 훌이 되고 여호수아가 되어 아말렉을 이기고 여리고 성을 무너뜨리는 십자가 군병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두려워하거나 소극적인 권속이 없게 하시고 기도로 무장하여 함께 땀 흘려 일하며 주님 주신 좋은 기회를 감사히 받아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이 축복을 마음껏 누릴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 성전이 마지막 때에 불쌍한 영혼들을 구원에 이르도록 인도하는 노아의 방주가 되기를 원합니다.

베드로가 한번 설교할 적에 3천 명이 회개하며 “형제여 내가 어찌해야 구원을 얻으리까” 자복하던 초대교회의 역사가 이제 이 지역에서도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흰 눈같이 순결하고 비둘기같이 온유하며 뱀같이 지혜롭게 전도의 사명도 감당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사명 감당할 일꾼들이 부족하오니 부르실 자를 불러주시고 채우실 자를 채워주셔서 천국 공간이 알곡으로 가득 차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오나 하나님 나라를 대적하는 누룩의 침투나 하나님 나라를 시기하

는 마귀의 꾀술은 막아주시기를 원합니다.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않고 시고 중심을 보시는 주님께서 못난 저희들의 신앙 양심까지도 받아 주시기를 원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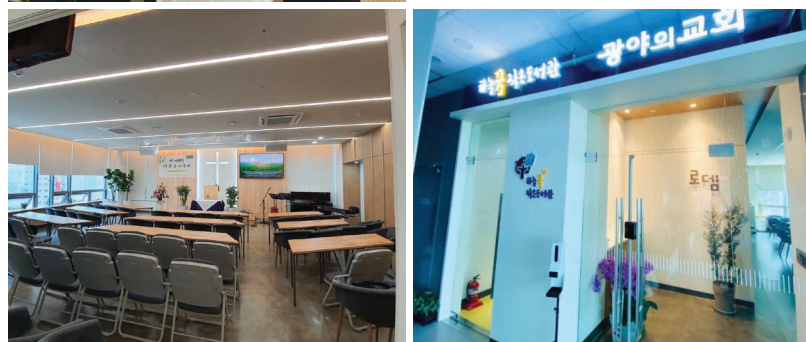
“이 성전의 나중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크리라. 내가 이곳에 평강을 주리라”고 언약하신 말씀대로 이루어지기를 원하오며 우리모두 한마음 되어 협력하여 선을 이루어가기를 원합니다. 국민을 괴롭히며 교회를 핍박하는 정치인들 없게 하시고 국론의 분열도 막아주셔서 한마음으로 힘을 모으는 번영의 대한민국이 되기를 원합니다.

역병을 물리쳐서 일상의 행복을 되찾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오며 세계 곳곳에서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님들의 안전과 건강도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목사님 영역을 칠 배나 더하셔서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잘 풀어 가르치게 하시고 혼탁한 이 시대에 존경받는 지도자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귀한 목사님 통하여 선포되는 말씀에 새 힘을 얻어 세상을 이기고 사탄의 권세를 깨뜨리며 승리하는 일평생 삶의 지표가 되기를 원합니다. 예배의 순서와 절차마다 주님께서 친히 주장하시고 권고하여 주시기를 원하오며 우리를 대속하셨고 또 구원해 주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2021. 8. 29.

노대홍 장로 / 광야의교회



광야의교회는 주님의교회에서 두 번째로 10년전에 분립한 교회입니다. 지난 7월 4일 위례 지역으로 이전했으며 주님의교회 부목사를 지낸 임창진 목사가 시무하고 있습니다. 8월 29일 창립 10주년 예배에서 대표기도를 한 노대홍 장로의 기도문을 전제합니다.

사역 간증

나의 직업은 호스피스 봉사자입니다

무더위도 살짝 꺾이는 것 같습니다. 답답한 마스크가 한결 가벼워진 느낌이 듭니다. 초기엔 코로나19가 어느 정도 확산되고 자연적으로 서서히 사라지기를 바랬는데 점점 날들이 쌓여갈수록 그 확산세가 전 세계적으로 거침없이 확대되어가는 어이없는 현실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64기 무지개 호스피스 교육이 가을에 시작이 되어 교육 프로그램 포스터를 전달받으려고 광화문 각당 복지재단에 다녀왔습니다. 모처럼의 나들이길, 남산을 걸어서 서대문 적십자병원 앞으로 해서 광화문을 다녀왔습니다.

늘 걸어서 봉사를 다니던 서대문 적십자병원앞으로 해서 광화문을 걸었습니다. 서대문 로타리에서 적십자병원 호스피스 병동이 있던 11층을 바라보며 한참을 쳐다보았습니다. 코로나 전담병원으로 바뀐 적십자병원 호스피스병동. 이제는 들어가지도 못하는 호스피스 병동.

“언제 호스피스병동이 있는 11층까지 올라 갈 수 있을까? 아주 못 가 볼지 모르겠다.”하는 마음이 들기도 하며 호스피스 봉사를 하던 때를 추억으로 생각도 해 보았습니다. 호스피스병동 저쪽은 대나무 병실, 저쪽은 소나무 병실, 저쪽은 삼나무 병실, 일주일에 한 두 번씩 다니던 서대문 로타리도 이제는 많이 변했습니다. 자주 다니던 여러 길들이 이제는 낯설어 보이기까지 합니다.

그동안 게을렀던 일상, 코로나로 핑계를 대며 살았던 1년 8개월도 지나고 확진자도 2,000명이 왔다 갔다 하고 세상도 변하고 이제는 예전 세상이 언제 제대로 돌아올지 꿈만 같습니다.

호스피스를 처음 생각할 때 어머님 모습이 생각이 납니다.

어머님이 원인도 모르게 밤에 피를 토하셔서 119를 타시고 병원으로 가셔서 검사를 받으시고 암이 아니라는 판정을 받으셨지만, 그 병실에서 그렇게 나이가 많지 않은 분이 암으로 두 딸을 남겨놓고 하늘나라로 가는 모습을 보고 어머님이 퇴원을 하시면 호스피스 교육을 받고 봉사를 해야겠다는 생각을 한 지가 15년이 지났습니다. 어머님 무사하게 퇴원을 하신 후에 호스피스 교육을 받으면서 덕수궁 돌담길을 걸으며 떨어지는 낙엽을 보며 ‘호스피스’라는 말이 요연한 단어라고 나에게서는 쉽지 않은 단어라고 호스피스 병실에서 암으로 투병 중인 환우들을 돌보아 주어야 한다는 생각, 하늘나라로 가시는 분들에게 발 맛사지와 목욕과 영적 보살핌, 등등을 해야 한다는 생각이 많이 들고 봉사에 대한 두려움도 있었습니다.

무지개 호스피스35기로 수료와 동시에 쌍문동 한일병원에서 봉사를 시작하였습니다. 처음으로 병실에 들어가 물 모금도 마시지 못하는 환우를 볼 때 이곳이 내가 봉사를 해야 하는 병실이구나 하는 현실임을 느꼈습니다. 15년의 세월 많은 환우 분을 만나고 많은 환우들과 헤어졌습니다.

봉사를 하며 실수도 했고 같이 눈물도 흘리고 마지막 찬양도 같이 부르고 손잡고 마지막 기도도 드리고 장례식에 참석하여 입관의 모습과 화장장에 가서 유골도 수습하여 하늘나라로 가시는 길 배웅도 해드렸습니다. 남자 봉사자라 주로 남자 환우들 목욕을 시켜드리며 머리를 감기는데 평범하게 우리들 머리를 감는 듯 머리를 시원하게 감겨드린다고 심하게 감겨 그분이 아프다고 해서 “아, 이분은 환우라 아프구나, 환우 분은 그냥 가볍게 해드려야 하는구나.”하고 느끼며 봉사를 하던

때들이 생각납니다.

호스피스 봉사를 시작한 후. 코로나19로 이렇게 호스피스 봉사를 못할 것이라고는 생각도 못해보았습니다.

코로나19로 지금은 봉사를 못하고 있지만 매주일 월요일에는 청량리 밥퍼에서 무료급식 봉사를, 화요일은 늘푸른노인 대학에서 주방 봉사를, 수요일에는 남천 경로당에서 배식 설거지 봉사를, 목요일에는 적십자병원 호스피스 봉사를, 금요일은 한일병원 호스피스 봉사를, 주일에는 사랑나무 예배 봉사를 하며 주님의 사랑과 생명사랑을 전했습니다. 특별하게 생각나는 봉사는 춘천 호스피스에 가서 하는 봉사였습니다. 매주 월요일마다 가깝지도 않은 춘천까지 전철을 타고 다니면서 했던 봉사 현장 함께 한 봉사자 한분한분의 모습들이 생각이 납니다.



호스피스 봉사를 하며 적십자병원에서 45년 만에 만난 친구가 생각이 납니다. 봉사를 하며 우연히 병실에서 만난 고등학교 동창이 위암으로 병동에 입원을 하였는데 병동에서 2주간의 짧은 만남 속에 마지막으로 손을 잡고 기도를 하며 찬양을 함께 하며 동창 친구를 하늘나라에 보내면서 친구에게서 들은 말이 생각이 납니다. “너는 정말 천사구나” 하는 말. 친구를 봉사 현장에서 만났을 뿐인데. 친구에게 마지막 말을 전해주었습니다. “나는 천사가 아니고 그냥 호스피스 봉사자인데 하나님께서 너를 이곳에서 만나게 해주셨으니 며칠 후에 헤어진다고 해도 우리는 꼭 하늘나라에서 만나자고.”목요일에 마지막으로 만나고 금요일에 마지막 목욕을 시켜주려 했는데 친구는 뭐가 급한지 마지막 얘기도 못 나누고 하늘나라로 가서 아직도 그 친구가 더욱 더 보고 싶습니다. 목욕을 시켜주며 이런 말 저런 말 하고 싶었는데 “물이 뜨거워 뜨거우면 미지근하게 해 줄게. 등 돌려봐, 비누 더 발라 줄게.”하는 이야기를 나누고 싶었는데... 그 친구가 보고 싶습니다.

50대에 호스피스를 봉사를 시작한 지 이제는 15년, 남들이 나를 이렇게 부르곤 합니다. “직업이 호스피스 봉사자”라고.

코로나 19로 재충전의 시간을 가지고 쉬고 있지만 체력이 지탱해 주는 날까지 봉사를 계속 하고 싶습니다.

환우분과 마지막으로 부르곤 하던 찬양을 하늘나라에 먼저 가신 그분들을 생각하며 다시 한번 더 부르고 싶습니다.

“세상사는 동안에 나와 함께 하시고 세상 떠나 가는 날 천국 가게 하소서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주님은 우리를 이렇게 사랑해주십니다. 이른 새벽에 잠에서 깨어 주님께 간구를 드립니다. “천국 가게 해 주세요. 천국에 먼저 가 있을 호스피스 병동에서 만났던 분들을 만나게 해 주세요.”라고.

신형섭 장로 / 주님의교회 호스피스

* 이 글은 지난 8월 31일 한국교회 호스피스치유협회 호스피스 봉사수기 공모전에 응모한 간증입니다.

사역 후기

천국환송예배(발인예배)에서의 조가대 사역을 마감하면서

다섯 살 때부터 어머니를 따라 교회에 출석하였다. 주일학교에 다닐 때에는 주로 찬양을 하였고, 대학 시절에는 주일학교 교사와 찬양대 사역을 하였다. 결혼 후 아들들을 양육하면서 교회 봉사를 멈추었고, 아들들이 고3이 될 때까지 가정예배를 이어나갔다. 집사를 거쳐 권사가 되면서 구역장과 전도회 회장으로 사역했다. 선교의 비전을 품고 선교방송국에서 상담봉사를 하고, 선교단체에서 서기와 이사로 동참 후 ‘가는 선교사’로 파송되어 10년간 선교에 올인했다. ‘자비량 평신도 교육 문화 선교사’로 러시아에 헌신했고, 70살이 되면서 국내 본부 사역에 힘쓰고 주님의교회에 등록했다.

교회에 많은 사역팀이 있었지만, 천국에 소망을 갖는 나이에 걸 맞는 상례부 산하 조가대인 ‘하임찬양대’에서 봉사를 시작했다. 2016년 9월 24일부터 2020년 2월 7일까지 3년 5개월간 천국환송예배에서 77번 찬양을 했다. 심중에 100번 찬양 후 은퇴하려고 생각했는데,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사역이 중단된 지 1년 6개월이 되었다. 백신이 나와 잠시 희망을 가졌으나 변이 바이러스가 나오고 확진자는 국내를 비롯해 지구촌 전역에 2억 명의 확진자가 발생하였다. 조가대도 더이상 찬양할 수 없겠다는 판단 하에 이 사역후기를 투고하면서 은퇴를 하게 되었다.

천국환송예배는 빠르면 새벽 4시경, 늦으면 오전 12시경 거행되는데 77번 동참하면서 경험한 점들을 나눠보고자 한다.

김화수 담임목사님께서 35번 설교하신 말씀 중에 가장 많이 인용한 말씀은 요한복음 11장 25~27절(15번), 고린도후서 5장 1~7절(10번), 요한계시록 14장 13절(5번)이었고, 설교 시간은 짧게는 5분, 길게는 15분, 평균 7분이었다. 교구 목사님의 설교시간은 짧으면 3분, 길면 17분, 평균 5분이었다.

예배한 병원은 주님의교회와 가까운 강남서울의료원을 비롯하여 가장 먼 병원은 대전 성모병원이었다. 서울과 경기도의 20여 곳 병원 중 가장 많이 참석한 병원은 삼성병원과 아산병원이었다.

천국에 간 고인의 나이는 가장 어린 9세에서 가장 많은 101세의 어르신이었다. 80대가 가장 많았고, 이어서 90대, 70대 순이었다.

각 병원 영안실에서의 천국환송예배에서 조가를 하는데 아무 어려움이 없었으나, 딱 한 번 방해를 받은 일이 있었다. 19번째 참석했던 2017년 7월 8일(토) 새벽 5시, 삼성 서울병원 장례식장에서 있었던 일이다. 입장할 때부터 다른 빈소에서 큰 소리로 소란을 피우던 30대 남성 두 사람이 우리 빈소로 들어와 찬송을 못하게 하고 시비를 걸었다. 30대의 이른 나이에 자신들의 친구가 별세했다는 사실에 슬퍼하며 술을 마셨고, 결국 취해 남의 빈소에 찾아와 행패를 부린 것이다. 결국에는 목사님께 사과를 했다는 소식을 들어 마음이 놓였다.

타 교회 발인예배에도 몇 번 참석한 경험이 있는데, 우리 주님의교회 천국환송예배처럼 순서지도 없고, 조가대가 있더라도 우리교회처럼 검은 가운을 입고 경건히 찬양하는 모습은 발견할 수 없었다. 주님의교회가 주관하는 천국환송예배에서 더 이상 찬양하지 못하고 은퇴하는 이 비상 상황에 안타까운 심정이다. 우리 내외가 별세할 때쯤이면 조가대의 찬양을 들을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기를 소망하면서 원로의 사역후기를 맺는다.

우리 모두 천국 본향에서 See you again!

이소현 권사 / 4교구

교우 문단

대벌레 잠언

작은 더위, 소서小暑였는데 기온이 섭씨 30도를 훌쩍 넘어 섰다 천둥번개를 동반한 비구름이 북상 중인, 바야흐로 COVID19 변이시대 우리는 우면산 옆구리께 돌레길에 접어들었다 남부순환도로 분수다리를 건너면 대성사로 난 오솔길 초록초록 수많은 초록 틈에서 햇살이 은입사銀入絲 금입사金入絲되며 부서진다 대성사 초입을 비껴 국립국악원 뒷동산 모퉁이를 막 돌아서려는 순간, 솔향 날리고 솔바람 부는 쪽이 수상하다

내 손등의 핏줄보다 더
푸르고 도도룩한 산수국 잎새의
잎맥 너머 그 너머
무슨 잠언을 필사하고 있는 것일까

퇴악별 하늘을 머리에 이고
대벌레가 한 마리
바람결 한 점 바이없이 흔들리고 있다

눈부시고 고요한 필사

걸날개 속날개 모두 퇴화하고 남은
눈부시고 고요한 집중

여름 가고 가을이 오면
저 뜨거운 잠언 한 말씀
점자點字처럼 읽을 수 있을까

이희숙 권사 / 4교구



목회 칼럼

가을의 길목에서

인생의 가을이 이미 찾아왔고,
 시간은 다시 되돌릴 수 없습니다.
 이렇게 지금까지 살아온
 자신의 가치 체계를 재검토하는 시간은
 모든 사람에게 찾아오기 마련입니다,
 하지만 이 시간을 성공적으로 맞아들이는 사람은
 많지 않다고 합니다.
 인생의 아침과 같은 방식으로
 인생의 저녁을 살 수는 없습니다.

계절의 변화

어느덧 무더웠던 날들이 다 지나가고 아침저녁으로 제법 차가운 공기가 느껴집니다. 계절은 여름을 막 보내고 가을의 문턱을 넘어섰습니다. 이제 다시 교회에서는 온라인 거자씨 모임도 기지개를 펴고 양육 클래스 과정도 시작합니다. 그런데 왠지 이런 것들이 봄과는 사뭇 다른 느낌으로 다가옵니다. 너무 일찍 가을을 타는 것 같습니다.

여름에서 가을로

작은 책 한 권을 다시 집어들었습니다. 폴 트루니에의 책 <인생의 사계절>에서는 계절의 변화에 비추어서 인생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책의 5장 '여름에서 가을로'에서는 인생의 또 다른 인생의 전환점을 우리에게 소개해 줍니다. 용은 이 시기를 인생의 황혼이 시작되는 나이이며, 긴 오르막길을 걸은 후 이제 내리막길을 배워야 하는 시점이라고 하였습니다. 트루니에는 이 때가 결혼하지 않은 한 여인이 어느 날 자신이 더 이상 결혼하기 어려운 나이가 되었음을 인정할 때이며, 또 한 남자가 이제까지 자신이 잘못된 길을 걸어왔음을 깨닫는 순간이라고 말합니다. 인생의 가을이 이미 찾아왔고, 시간은 다시 되돌릴 수 없습니다. 이렇게 지금까지 살아온 자신의 가치 체계를 재검토하는 시간은 모든 사람에게 찾아오기 마련입니다, 하지만 이 시간을 성공적으로 맞아들이는 사람은 많지 않다고 합니다. 인생의 아침과 같은 방식으로 인생의 저녁을 살 수는 없습니다.

인생은 무엇인가?

이 책 속에서 트루니에는 이 시기 인생의 참 행복은 언제나 내면의 깊

은 조화와 결부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것은 무엇보다도 자신의 나이를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질문하는 것입니다. “인생이란 무엇인가?” “이러한 변화는 우리를 어떤 곳으로 인도해 가며 인생에 어떤 의미를 부여해 줄 것인가?” 인생의 여름을 지내는 동안에는 이러한 질문을 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인생의 가을이 되면, 가을이 찾아오면 우리는 이러한 질문에 마주하게 됩니다. 더 깊은 인생의 의미를 찾아야 할 때가 된 것입니다.



지난날의 회고

은퇴하신 한 장로님께서 문자를 보내주셨습니다. “목사님, 2016년 주님의교회 부임하셔서 통일선교사역으로 수고하셨던 모습을 기억하는데 벌써 시간이 6년이 되었네요.” 문자를 받고 흘러간 시간들을 떠올려 봅니다. 주님의교회에 처음 부임하여 통일선교를 한다고 열심히 사역했던 날들이 있었습니다. 주일마다 머리가 다 헝클어지고, 옷이 땀에 다 젖어서 쉼내(?)까지 풍기면서 돌아다녔지요. 마치 교회사역은 혼자 다 하는 것처럼 뛰어다녔습니다. 아마도 그 시간이 저에게는 꽃 피는 봄날이요, 찬란한 여름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저도 가을의 목전에 이르렀습니다. 이 가을이 깊어가기 전에 다시금 되돌아보게 됩니다. 그동안 나는 살면서 어떤 열매를 맺어왔는지 말입니다.

가을의 길목에서

자랑할 것이 별로 없습니다. 많은 아쉬움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도 이미 흘러가버린 시간들을 돌이킬 수 없습니다. 괜히 헛헛해지는 마음이 듭니다. 그렇지만 이 모습 그대로 다시 하나님 존전 앞으로 나아갑니다. 이 계절의 변화 앞에서 내 인생의 전환점을 다시 주님 앞에 내어놓습니다. 우리는 모두 계절의 변화 속에서 이 가을의 길목에서 있습니다. “주님, 우리가 이 계절의 변화를 잘 받아들이게 하소서. 인생의 변화 속에서 우리를 향하신 그 깊은 의미를 발견하게 하소서. 아멘”

허준 목사

(사)섬김과나눔 소식

추석 선물 나눔

(사)섬김과나눔 무의탁 어르신 생활지원팀에서는 매주 월요일 마친, 거여 지역 120여 가정에 죽과 생필품 지원을 8월 30일부터 하반기 사역으로 시작했다. 코로나19 팬데믹이 장기화되는 가운데 주님의교회는 어려운 이웃들을 지속적으로 섬기고 있다. 힘든 상황에 처한 무의탁어르신들에게 식품과 생필품을 정기적으로 지원하고 있으며, 특별히 지난주 9월 12일(월)에는 추석 선물을 준비하여 마음을 전달했다. 또한 (사)섬김과나눔을 통해 12개 기관과 협력하여 "생명사랑 이웃사랑 실천 이웃돕기 지원사업"으로 지역사회복지의 증진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

함글함글



(사)섬김과나눔
소식

2021 생명사랑 이웃사랑 공모사업

2021년 8월 8일 이사회에서 의결한 추경예산으로 확보된 재원을 바탕으로 진행하고 있는 2021 생명사랑 이웃사랑 공모사업 진행 보고입니다. 이번 공모사업은 코로나19로 어려워진 이웃을 돕기 위한 구제사업으로, 송파구에 있는 복지기관들과 협력하여 진행하고 있습니다. 8월 25일까지 접수하여 27일 심의위원회에서 대상기관을 선정하고 오늘 발표하였습니다.

코로나 장기화로 사회적 약자들이 기댈 곳이 점점 줄어드는 현실인데, 저희 교회(법인 섬김과나눔)가 조금이라도 도움을 줄 수 있어서 좋습니다. 이번에 혜택을 받는 분들은 대부분 복지기관에서 사례관리 하던 분들로 이 사업을 통해 돕게되어 너무 감사한다는게 해당기관 담당자들의 반응입니다. 앞으로도 저희 교회가 송파구의 어려운 이웃들을 섬기는 진정한 (사)섬김과나눔이 되길 소망합니다.

대상 기관	지원금(원)	지원내용	비고
가락종합사회복지관	2,500,000	생활지원금 5명, 긴급의료비 1명	생명사랑이웃사랑 실천이웃돕기사업
마천종합사회복지관	2,000,000	교육비 지원 4명	
삼전종합사회복지관	4,700,000	생활지원금 7명, 긴급의료비 2명, 냉난방지원금 3명	
서울시농아인협회 송파구지회	2,400,000	생활지원금 8명	
송파노인종합복지관	5,000,000	생활지원금 8명, 긴급의료비 5명, 냉난방지원금 4명	
송파노인복지센터	600,000	냉난방지원금 2명	
송파인성장애복지관	4,500,000	냉난방지원금 15명	
잠실종합사회복지관	4,500,000	긴급의료비 3명, 재난구호금 1명, 냉난방지원금 1명	
송파교육복지센터	4,700,000	주거환경개선비 3명, 생활지원금 1명	유관기관복지사업
송파구 방이복지관	5,000,000	명절음식 / 생활용품지원 125명	
외국인비전센터	5,000,000	생활지원금 5명, 재난구호금 4명, 난방지원금 5명	
우리들학교	4,000,000	한국어교육비 20명 4개월	
총 12개 기관	총 44,900,000	총 232명	

교회일정

10/6(수) 교구연합수요기도회

알립니다

1. 온 가족이 함께하는 성경필사 VOL.3

필사본문 :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
필사기간 : 10/1(금)~11/30(화)
수령기간 : 9/5부터 소진시까지
수령처 : 1층 로비(주중: 무인판매대)
문의 : 한시영 목사(010,8935,5048)

2. 입교 및 세례교육

대상 : 교회 등록 후 6개월 이상된 성도
교육 : 9/19~10/10(4주) 오후2:30
접수 : 4층 교역자실
문의 : 이창수 안수집사(010,5472,7059)
※ 입교세례예식 : 10/17(주일) 3부예배시

함글함글, 원고를 기다립니다

주님의교회 신문 <함글함글>은 성도 여러분의 생각과 마음이 담긴 값진 원고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신앙간증, 사역후기, 교회 안의 미담이나 칼럼, 기행문, 단상 등 주님의교회 공동체와 같이 나누면 좋은 어떤 글이라도 보내시면 됩니다. 메일 hamletter@daum.net 으로 보내주시면, 편집자침에 따라 검토하고 지면 사정에 맞추어 게재합니다.

함글함글

함글함글

발행인 : 김화수

편집인 : 심동욱

발행처 : 주님의교회

서울 송파구 올림픽로 4길 16 정신여고 내
02)416-5181~2

www.pcltv.org

편집 : 홍보출판부

<함글함글>은 주님의교회가 발행하는 문서선교지입니다. '함글함글'은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리는 자들과 함께 울라" (로마서 12:15) 말씀에 바탕을 두고, 교회 안팎의 모든 사람들과 함께하려는 뜻을 담은 이름입니다.

교회 공동체 여러분의 좋은 글, 소식, 간증, 기사제보를 기다립니다. hamletter@daum.net



주님의교회

호스피스 자원봉사자 교육생모집

2021년 9월 23일~12월 9일 매주 목요일

- 대상** 호스피스에 관심있는 모든 교우
- 교육방법** 온라인교육
- 교육비** 130,000원 (교재비 2만원 별도)
주님의 교회 등록교인(본인부담 50,000원)
- 특전** 교육 수료 후 200시간 봉사 시 소정의 시험 후 한국호스피스협회 인증서 발급
- 등록문의** 김영미 부장 010-5356-9473
홍정미 총무 010-6482-2572